

3-18-2004

돈에 대한 신학과 목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

Churl Soo Park 박철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박철수, "돈에 대한 신학과 목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0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Paper entitled

THEOLOGICAL AND PASTORAL MEANINGS OF MONEY

written by

CHURL SOO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 Kii Min

Moon Sang Kwon

Seyoon Kim

March 18, 2004

THEOLOGICAL AND PASTORAL MEANINGS OF MONEY

DISSERTATION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URL SOO PARK

MARCH 2004

돈에 대한 신학과 목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을 풀려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박철수

2004년 3월

Abstract
Theological and Pastoral Meaning of Money
Churl Soo Park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espite the significant influences of money on the human life in general,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attempts to consider it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Considering that the Bible so frequently and in detail mention money, the Korean churches' apparent negligence to teach about it seems quite strange. As Jesus said in Matt 6:24, money even can replace God in our real lif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the Christians to learn through the Bible how to consider and use money. In this dissertation we shall attempt to discuss money from the bibl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perspectives.

In Chapter 2, we shall first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money in the human societies primarily based on the secular economic history and the biblical accounts for money. And then we shall attempt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nd our faith.

In Chapter 3, we shall discuss the theological aspects of money. It was Adam's fall that brought money in the human history. And money can be used as a powerful instrument of Satan to enforce us to trust in the false god Mammon, not in God.

In Chapter 4 we shall discuss how we as believers can make a wise and proper choice between God and money. Our belief should be demonstrated through our proper use of money and contributions. Our commitment and obedience should be proved through our recognition of the lordship of God, not that of money.

In Chapter 5, we shall discuss various social problems concerning the rich

and the poor. We shall redefine 'the rich' and 'the poor'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And then we shall argue that Christians, following Christ's example, should become poor in their loving others.

In Conclusion, we shall summarize our discussions and attempt to give the practical answers to several pastoral questions about money which might be raised. We hope this dissertation can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Korean Christians' understanding and proper use of money in their real life situations.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 성숙을 강조하시면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오래오래 잊지 않을 신학의 맛을 일깨워 주신 김세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풀러(Fuller)에서 공부하는 것의 유익함을 일깨워 주시고 자상한 보살핌으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주 격려와 세심한 인도로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태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워드로 치지 못한 나의 원고를 일일이 워드로 재생산해 깨끗한 글로 정리해 주고 여러모로 도와 준 구교형 목사, 이광하 목사, 김양석 목사, 고은미 전도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논문 원고와 각주를 교정하고 논문의 외양을 잘 정리해 준 이종만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당두레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3월

박철수 목사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4
제 2 장 돈에 대한 일반적 고찰: 기원, 역사, 기능	6
제 1 절 돈의 기원과 역사	6
1. 돈의 기원	6
2. 돈의 역사	7
가. 물품(상품) 화폐	7
나. 금속화폐	7
다. 지폐	8
라. 예금화폐	8
마. 전자화폐	9
제 2 절 돈의 기능과 성격	9
1. 교환수단으로서의 돈	9
2.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돈	10
제 3 장 돈에 대한 신학적 고찰	12
제 1 절 예비적 고찰: 돈과 관련된 성경의 용어들	12
제 2 절 타락구조 안에서 생겨난 부의 왜곡: 돈	14
제 3 절 불의한 mammon	17
제 4 절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	24

제 4 장 돈과 신앙 : 실존적 문제	28
제 1 절 사랑의 문제	28
1. 사랑의 의미	28
2. 사랑의 성격	30
제 2 절 헌금의 문제	34
1. 믿음(사랑)은 돈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35
2.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37
3.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42
4. 십일조	45
가. 십일조의 시작	46
나. 십일조의 율법화	46
다. 종교적 쇠퇴기의 십일조	48
라. 신약시대의 십일조에 대한 교훈	50
마. 연보에 반영된 십일조의 원리	53
제 5 장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문제	57
제 1 절 부 · 부자	57
1.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가	57
가. 구약에서의 부자	58
나. 신약에서의 부자	60
2. 부 · 부자의 의미	64
제 2 절 가난한 자	67
1.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68
가. 출애굽기에서	68
나. 신명기에서	70
다. 예언서에서	72
라. 시편에서	73

2.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	75
가.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75
나.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가난한 자	77
다. 가난한 자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79
제 3 절 가난한 자의 축복	81
1. 누가 가난한 자인가	82
2. 가난한 자가 되자	85
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86
나.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87
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88
라.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89
제 6 장 결론	91
부록 목회 현장에서 자주 대두되는 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	94
참고문헌	100
VITA	10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돈이란 무엇인가? 동전하면 작은 조각에 불과하고 그 물건 자체만 두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도 욕심낼 것이 없는 하찮은 것이다. 더구나 지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조그만 토막 종이의 앞뒤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메모용지의 가치도 없다. 그런데도 돈은 수없이 많은 인간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고 인간사에서 슬한 희로애락의 근원이 되었다.

신학자 오토 파이프(Otto A. Piper)는 ‘돈은 신비스러운 것’이라 했고¹⁾ 칼 마르크스(Karl Marx)도 그의 자본론에서 ‘돈이야말로 수수께끼’라고 말했다.²⁾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돈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³⁾ 돈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인간의 생명과 운명, 그리고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역사적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⁴⁾ 돈은 고전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돈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현상과 역사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돈에 대한 일반적 생각은 매우 단순하고 순진한데 머무르고 있다. 즉 교회는 단지 십일조, 돈과

1) Otto A. Piper, 복음주의 총서: 돈, 전경연 편역, (서울: 향린사, 1973), 90.

2) Karl Marx, 자본론, 김영민 역 (서울: 이론과 실천사, 1987), 115. K. Joel도 “돈은 교환과정에서 생겨난 세계의 한 상징으로서 궁극적으로 세계관적 지배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확장해가는 무한한 상호관계의 이미지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돈의 신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Georg Simmel, 돈의 철학, 안준섭외 역 (서울: 한길사, 1983), 20.

3) 김수행, 정치경제학 원론, (서울: 한길사, 1988), 50-51.

4) Simmel, 돈의 철학, 25.

5) 박홍립, 경제학 원론, (서울: 박영사, 1984), 416.

축복과의 함수 관계에만 집착함으로써 돈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돈이 가지고 있는 물신적(物神的) 성격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20세기의 곁출한 사회학자중 한 사람인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예정=부자=축복⁶⁾의 등식이 잘못 해석되고 확대되어 돈의 본질과 돈과 신앙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⁷⁾

중세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면죄부 매매의 성직 매매는 돈이 교회 안에서 활동한 구체적 사례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가진 문제로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⁸⁾ 자크 엘룰(Jacque Ellul)의 말대로 이제 돈의 힘 앞에 국가, 법, 예술, 그리고 교회가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⁹⁾ 돈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척도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영적인 성격¹⁰⁾까지 띠고 있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돈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돈¹¹⁾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돈이 신앙결단에 있어서 매

6)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종순 역 (서울: 세계, 1987), 43-82.

7)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58-63. 이러한 관점에서 씌여진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W. F.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289-309. Robert W. Green, ed.,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베버 명제와 그 비판, (서울: 종로서적, 1981) 여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11개의 논문이 실려있다. J. P. Wogamn, 경제 이데올로기 대논쟁, 조운상 역 (서울: 청사, 1981)

8) Erich Fromm, 소유냐 존재냐, 한완상외 역 (서울: 전망, 1978), 13-28.

9) Jacque Ellul, 사람과 돈, 양명수 역 (서울: 보리, 1988), 18.

10)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성기문, “설교를 왜곡시키는 돈의 힘”, 기독교 사상, 2003년 2월호, 156-65.

11) 우리말 성경에 ‘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UBS⁴/NA²⁷)에는 “마모나스”(μαμωνάς)로, 영어 성경(KJV, RSV)에는 맘몬(mammon)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상품, 그리고 한 개인의 번영 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anti-God)이자 우상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하나님께 철저히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이다. Rudolf Schnackenburg, The Gospel of Matthew, trans. Robert R. Barr (Grand Rapids: Eerdmans, 2002), 71-72.

우 중요한 대상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선 선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돈은 인간의 내면에서만 아니라 사회 생활 속에서도 활동하는 힘이 있다. 돈은 사회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낸다.¹²⁾ 예수님의 교훈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돈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의 종합적인 연구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역설적인 현상이다.¹³⁾ 돈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은 화폐경제학¹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교회와 신학계에서의 종합적인 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윤리학과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조차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¹⁵⁾ 따라서 돈의 본질과 성격,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돈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12) 최근 한국교회 안에 청부론(淸富論)과 청빈론(淸貧論)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책으로는 김동호,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 2001)과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서울: IVP, 2003)가 있다. 양 진영은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청부론은 '돈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상급이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청빈론은 '부는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맘몬신이다, 예수의 삶을 따라 청빈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는다. 지난 2003년 4월 21일에는 CBS 공개홀에서 양 측은 공개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라. <http://www.newsnjoy.co.kr/rnews/pastorate-1.asp?cnewsDay=20030422&cnewsID=4> 또한 한종호는 "청부와 훌륭한 거부 곁에서 서성대는 예수", 기독교 사상, 2003년 7월호, 44-59.에서 청부론 논쟁을 잘 요약했다.

13) 이런 점에서 황호찬,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1996).같은 책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 저자는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이론과 신학 이론의 바탕에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에 대한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전문 연구서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청부론 논쟁은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촉진하리라 생각한다. 청부론 논쟁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12번을 참조할 것.

14) 경제학은 크게 경제사학, 경제이론, 경제정책학의 세 분야로 구분되는데 '화폐경제학'은 경제이론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박홍립, 경제학 원론, 12-13.

15) 최근 '부자되는 법'에 관한 책들이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사회 전체가 '부자 되는 것'을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기독교 출판계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돈'과 '부자'에 관한 대중적인 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는 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연구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조,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14.

제 2 절 연구방법

클라우스 뮐러(Klaus Müller)가 “돈을 무엇인가 이해하려 할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비로소 극복된다”¹⁶⁾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돈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하려고 한다. 돈의 문제는 돈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돈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서 있을 때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사용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돈의 발생과정과 그 발달 역사를 경제사와 성경 역사 속에서 개관한 다음,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규명하고 돈과 신앙의 관련성을 실존적 차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2장에서는 돈의 발생과 돈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돈이 발생한 배경과 그 역사, 돈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돈의 성경 용어들과의 관련성을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돈의 신학적 성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돈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밝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맘몬(Mammon)을 중심으로 돈의 물신적 경향¹⁷⁾을 고찰하면서 돈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신앙 생활 속에 활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로 돈이 제시하는 실존적인 문제인 신앙의 문제, 즉 하나님이나 돈이냐의 ‘선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¹⁸⁾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윤리적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이 헌금 - 돈의 사용 - 을 통하여 구체화됨으로써 신앙이 결코 관념적 유희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헌신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헌신과 순종은 돈을 굴복시킴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5장에서는 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 즉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부와 돈의 차이점,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로 오셨고,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으며 지금도 가난한 자와 함께 계

16) Klaus Müller, 돈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들불 편집부 역 (서울: 들불, 1988), 19.

17) Marx, 자본론, 115.

18)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361-413.

신다. '가난한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대상이며 무릇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자는 선택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¹⁹⁾

이상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이해가 단순, 순진할 뿐 아니라 비성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타락구조 안에서 생겨난 돈의 본질과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하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오는 돈의 실체를 밝힘으로 돈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결단의 필요성을 생각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신구약성경을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²⁰⁾으로 전제하고, 개혁주의 성경해석법인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할 것이다.²¹⁾

마지막으로, 결론과 더불어 부록에서 돈에 대한 가상적인 몇 가지 목회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목회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

19) John R. W.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83.

20) 이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제1장 4절과 10절에서 가져왔다.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9-2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다.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10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을 결정하고 모든 회의들의 결정, 고대 저자들의 의견, 사람들의 교리들, 개인의 정신이 검토될 때 최고의 심판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21) 권성수, 성경해석학1,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24-72.

제 2 장

돈에 대한 일반적 고찰: 기원, 역사, 기능 그리고 성격

모든 인간은 돈 앞에 선다.²²⁾ 돈은 모든 척 지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과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돈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려고 한다. 곧, 돈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기능과 성격을 다루는 가운데, 돈이 인간 최대의 욕망의 대상이 됨을 살피고자 한다.

제 1 절 돈의 기원과 역사

대체 이 돈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베른하르트 라움(Bernhard Laum)에 의하면, 돈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²³⁾

1. 돈의 기원

초기에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던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점차 공동체를 지향해 가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교류가 생겼고, 이러한 교환 과정에서 화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²⁴⁾

22) Ellul, 사람과 돈, 104.

23) Bernhard Laum, 복음주의 총서: 저 신비로운 것, 돈, 전경연 편역 (서울: 향린사, 1973), 90.

24) Roland Nitché, 화폐의 역사, 김학은 역 (서울: 법문사, 1984), 9-13. 서로 다른 여러 생산

2. 돈의 역사

교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돈, 이제 이 돈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천과정을 겪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화폐 제도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²⁵⁾ 이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화폐 제도가 실질적인 소재가치를 중요시하는 물품화폐로부터 금속화폐, 지폐 및 예금 화폐로 변천되어 왔다는 것이다.²⁶⁾

가. 물품(상품) 화폐

초기 물물교환 경제에서 어떤 상품이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가 상품가치를 지녀야 했다. 이렇게 상품가치를 지닌 상품을 물품화폐 또는 상품화폐라고 한다. 이 화폐는 인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초기 물물교환 시대에 사용되었던 물품화폐로는 조개, 곡물, 피혁, 각종 가죽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물품화폐의 특징 중 하나는, 돈의 공급이 일부 개인들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금속화폐

위의 물품화폐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동질성, 내구성, 가분성, 이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물품화폐는 그러한 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점차로 금속화폐로 대체되어 갔다. 대체로 금속화폐는 채굴이 용이하고 용도가 넓은 금, 은, 동 및 철이었다. 처음의 금속화폐는 거래할 때마다 무게에 의해서 사용되는 칭량화폐(money

물 사이에서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돈의 발생은 필수적이다. Marx, 자본론, 87-89, 108.

25) Max Weber, 사회경제사, 조기준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6), 264. Max Weber는 이 책에서 돈의 종류를 1. 장식화폐, 2. 실용화폐, 3. 의장화폐, 4. 기호화폐로 분류한다.

26) 김인기, 통화의 상식 (서울: 한국 경제신문사, 1988), 18-25.

by weight)였다. 그러나 이것은 거래할 때마다 무게를 재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주조화폐이다. 주조화폐는 신용있는 개인이나 국왕, 정부가 귀금속을 일정한 중량으로 유통에 적절한 형태의 화폐를 주조하고 품위와 중량을 보증하는 것이다.²⁷⁾

다. 지폐

그러나 상품화폐나 금속화폐도 이용상 불편한 점이 많았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폐상품을 직접 유통하지 않고 정부가 화폐상품(주로 금)을 보관하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지폐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지폐발행고와 지급준비를 위한 금 보유액이 일치하는 경우 이를 전액준비제도(total reserve system)라고 하고 이때의 돈을 태환지폐(convertible paper money)라고 한다. 반면에 금을 일부만 보관하는 제도를 부분준비제도(partial reserve system)라 하며 이때의 돈을 불환지폐(inconvertible paper money)라고 한다.

라. 예금화폐

지폐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아직도 내구성, 편리성 및 가분성의 측면에서 결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을 기초로 은행에 의해서 수표와 어음과 같은 예금화폐가 등장하게 된다. 예금화폐는 가분성, 휴대의 편리성, 또는 내구성에서뿐만 아니라 발행비용 면에서 지폐보다 싸고, 금액의 많고 적음과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돈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

27) 일반적 성질이 일반적 등가물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당한 금과 은이 나중에는 돈의 형태를 독차지하였다.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66.

마. 전자 화폐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물품 구입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거래액만큼 자동적으로 이체하는 전자이체제도(electronic monetary transfer system)가 활성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상거래 등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매개들은 앞의 예금화폐의 단점인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킨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돈이 더욱 발전되어갈 것이다.

제 2 절 돈의 기능과 성격

어느덧 인간의 삶 속에서 돈만큼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없으며 돈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제 돈은 단순한 매개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여 경제 내부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오게도 한다.²⁸⁾ 그렇다면, 이 돈의 기능과 그 성격은 어떠한가?

1. 교환수단으로서의 돈

교환수단으로서의 돈 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 교환수단, 즉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매개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교환을 위해서는 돈이 필연적으로 가치척도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 가치는 어떤 형태로든 수량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불펜, 쌀 등의 상품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들의 가치는 돈에 의해서 드러난다. 돈은 갖가지 상품의 가치를 같은 이름의 크기, 곧 질적으로 동등하고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크기로 표현하는 데 있다.²⁹⁾

이러한 교환과정을 통해 상품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보편적 등가형태

28) 박홍립, 경제학 원론, 416.

29) Marx, 자본론, 117. Marx의 자본론은 '상품'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Marx는 상품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라고 정의한다 Ibid, 47. Marx는 상품과 돈을 분리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내면적인 필연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참조, 堀川實, 경제원론 이내영 역, (서울: 백산서당, 1985), 111.

로 된다. 즉 상품이 돈이 되고 돈이 상품이 된다.³⁰⁾

상품이 돈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돈이 상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상품 소유자의 편에서는 판매라고 말하고 돈의 소유자 편에서는 구매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상품 - 돈'은 동시에 '돈 - 상품'으로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돈은 교환의 매개역할을 한다. 이러한 돈은 상품의 유통이라는 용광로에서 그 연금술의 마술을 발휘한다.³¹⁾ '돈이 양반이다', '돈이 제갈량이다'라고 하는 말은 돈의 유통과정에서 생겨나는 돈의 위력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돈은 사랑도 우정도 효도도 상품화시키며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돈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까지 그 마수를 뻗친다. 이렇게 돈은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상대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돈은 모든 것의 질적 차이를 소멸시켜버리고 철저히 평등하게 만들어 모든 차이를 없애 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³²⁾

나아가서 돈은 상품의 물질적 가치의 수량화만이 아니라 인간능력의 가치척도가 되고 있다. 인간능력이 인간의 개인적 능력과 특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 측정되기까지 한다.³³⁾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그의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한 말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에 의해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앓은병이다. 그러나 돈은 나에게 스물네 개의 발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나는 앓은병이가 아니다. 나는 사악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므로 돈의 소유자도 그러하다... 돈은 최고선(最高善)이다. 인간의 마음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 가질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돈을 통해 가질 수 있지 않은가.³⁴⁾

2.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돈

다음으로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 돈의 가치저장기능이란 돈이 일반적인

30) Marx, 자본론, 108.

31) Ibid, 137.

32) Ibid, 158.

33) Karl Marx, 경제철학적 수고, 김태경 역 (서울: 이론과 실천사, 1987), 116.

34) Ibid, 116.

경제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돈 이외의 금융 자산, 각종 재물 등도 가치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재산들이 궁극적으로 돈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 돈이 거의 무제한으로 저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돈의 가치저장기능은 독보적이다.

돈의 가치저장기능은 지불수단기능에서 나온 것으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은 가치저장기능을 하는 것이다. 만약 돈이 가치저장기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지불수단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지불수단의 기능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돈의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의 연금술적 매력,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돈을 추구한다!

돈은 인간의 최대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 욕망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끊임없이 재화를 구하도록 명령한다.³⁵⁾ 돈은 언제라도 출동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욕망의 저장고이면서도 모든 것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³⁶⁾ 이 돈의 연금술의 매력 앞에 그 무엇도 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돈을 향한 저장 충동은 거의 무제한적이다.³⁷⁾

“흐르는 돈은 인간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흘러 넘치는 일이 없다.”³⁸⁾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사슴이 신선한 물을 찾아서 울 듯이 돈을 찾아서 울부짖는다.³⁹⁾

35) Marx, 자본론, 157.

36) Simmel, 돈의 철학, 484-88.

37) Marx, 자본론, 159.

38) Ibid, 160.

39) Ibid, 165.

제 3 장

돈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인간은 경제행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경제행위는 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돈과 관련을 맺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⁴⁰⁾ 칼 마르크스가 “돈이 나를 인간의 삶과 연결시키고 나를 사회와 결합시키는 끈이라면 돈은 모든 끈 가운데 끈이다. 돈은 모든 끈을 풀기도 하고 맺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⁴¹⁾ 또한 돈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상품화시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과 바꿀 수 있다. 돈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능력이 있다. 돈은 인간욕구를 표상하는 것으로⁴²⁾물질적 부의 대표자로 나선다.⁴³⁾ 돈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사회의 화학적 힘이다.⁴⁴⁾ 돈은 철저한 평등주의자로 모든 대상물의 차이를 제거하면서 인간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객관화시킨다.⁴⁵⁾ 이러한 돈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예비적 고찰: 돈과 관련된 성경의 용어들

성경에서 돈을 ‘돈’ 이라는 직접적 표현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돈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돈은 추상적 부와 가치의 대표자⁴⁶⁾로서 ‘경제적인 대상들의 보편적 개념’⁴⁷⁾ 이기 때문이다.

40) Jacob Needleman, 돈과 인생의 의미, 이희재 역 (서울: 고려원, 1993), 11-36.

41) Marx, 경제철학, 117.

42) Ibid.

43) Marx, 자본론, 159.

44) Marx, 경제철학, 117.

45) Simmel, 돈의 철학, 378.

존 M. 케인즈(John M. Keynes)의 말대로 돈은 '경제적 가치로 보편적 형식을 가진 가장 안정된 물건'⁴⁶⁾으로 인간은 무엇보다 돈을 선호한다.⁴⁷⁾ 이것을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재화 즉 금, 은, 동, 보물, 재산, 소유, 부유, 재리, 보화, 풍성, 부요, 재물, 산업, 부자, 가난 등의 표현은 모두 돈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⁵⁰⁾ 신명기 14장 26절은 이러한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לְכַלּוֹת אֲשֶׁר לְבָרְכֶךָ בְּכֶסֶף)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46) Simmel, 돈의 철학, 637.

47) Ibid, 638.

48) Ibid, 637.

49) 박홍림, 경제학원론, 318. 이자 발생의 원인에 관한 학설의 하나로 케인즈가 주장한 것이다.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물에 비유하고 모든 것보다 돈을 갖기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50) 신약성경에는 직접 '돈'으로 표현된 낱말이 다섯 가지다. 즉 아르귀리온(ἀργύριον, 마 25:18, 27; 28:12, 15; 막 14:11; 눅 9:3; 19:23; 22:5; 행 7:16; 8:20)과 케르마(κέρμα, 요 2:15), 노미스마(νόμισμα, 마 22:19), 칼코스(χαλκός, 막 6:8; 12:41) 그리고 크레마(χρῆμα, 행 4:37; 8:18; 8:20)이다. 아르귀리온은 은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은화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며 케르마는 적은 돈을, 노미스마는 주화, 법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칼코스는 우리말 성경에서 돈으로 번역되기도 했고(행 8:18; 20, 24, 26) 재물(막 10:23; 눅 18:24)과 부자(막 10:24)등과 같은 말로도 바꾸어 쓴 것을 볼 수 있다. 참조, W. E. Vine,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and New Testament Words, reference library edition, (Grand Rapids: Baker, 1981), 79-80. 구약성경에 나타난 '돈'은 모두 금, 은을 지칭하는 케세프(כֶּסֶף)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금, 은 등 각종 소유물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나올 때에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재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온(וֶן)이 기력, 힘, 권세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일(חַיִל)이 장수, 군사, 힘, 능력, 용명, 용기, 보화, 재산, 세력, 덕행, 현숙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물과 돈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시사해 주고 있다. 참조, F. Brown, S. Driver, and C.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Biblical Aramic, (Peabody: Hendrikson, 2000), 20, 298-99, 494,

제 2 절 타락구조 안에서 생겨난 부의 왜곡: 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위대한 선언과 함께 성경은 시작된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다’는 말이 무려 일곱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창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을 아끼지 않을 만큼 선하고 완전무결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이 살도록 하셨다. 그곳은 ‘에덴’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기쁨과 조화’가 가득한 곳이었다.⁵¹⁾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특히 안식일, 결혼 그리고 노동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계구조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⁵²⁾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⁵³⁾ 그중 돈의 기원과 돈의 성격은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은 인간이 갖는 창조의 즐거움을 확인하는 주요수단이다.⁵⁴⁾ 하나님께서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므로 노동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비로소 존재의 보람과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노동은 그것에 따른 수고와 결과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창세기 2장 15절의 ‘갈고 지키다’에서 ‘갈다’는 경외하고 존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꾸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킨다’는 말은 살피고 보호한다는 뜻이다.⁵⁵⁾

‘노동하다’의 히브리어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⁵⁶⁾ 에덴동산은 결코 한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인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다.⁵⁷⁾ 창세기 2장 17절의 ‘임의로 먹되’는 마음대로 즐긴다는 뜻으로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있었다.

51) Brown, Driver, and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Biblical Aramic, 726.

52) O. Palmer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74.

53) Ibid., 85.

54) Ibid., 86.

55)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71.

56) Dorothee Salle, 사랑과 노동,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20.

57)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7), 67.

축복된 그 날의 사람들은 '네 것'과 '내 것'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으리라. 성스러운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노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긴장이나 분리가 없었다. 거기에는 어떤 재산의 축적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교환이 필요 없었다.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상태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⁵⁸⁾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이 세계에 들어오자 노동의 축복은 고통스런 저주로 바뀌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노동은 수고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7)

노동 자체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었으나 노동에 따르는 수고가 별로 나타났다. 이제 노동은 괴로움이 되고 수고에 따른 결과도 정비례로 나타나지 않았다.⁵⁹⁾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저주가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주목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무엇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한다.⁶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무엇 때문에 노동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혼란에 빠졌다. 자기와 노동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 자체가 노동의 목적이 되고, 노동이 인간의 우상이 되는가 하면(전 2:4-11, 20-23; 눅 12:16-22), 이웃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출 1:11-14, 2:23; 약 5:4). 사람과 일과 그 일의 결과 사이에 불행한 분리가 발생한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이 들어왔다. 타락은 세계의 구조를 뿌리부터 오염시켜버렸다. 상황이 아주 달라졌으니 당연히 새로운 규정이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왔다.⁶¹⁾ 즉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욕망은 노동의 수고에 의해 생산된 부족한 재화간에 긴장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불충분한 재화를 더욱 많이 소유하고 아끼려는 경제행위가 발생하였다.⁶²⁾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질긴 섬유질로 된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하려는 마음, 즉 더욱 많이 소유하

58) Karl Heim, 기독교 윤리, 강학철 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209.

59) 박창환, "성서적 노동관", 기독교사상 1977년 1월호, 25-27.

60) Heim, 기독교 윤리, 209.

61) John Murray, 기독교 윤리, 김남식 역 (서울 : 성암사, 1975), 51.

62) Joseph Kardinal Höfner, 그리스도교 사회론, 박영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9), 162.

려는 욕망이다.

‘나의’, ‘나의 것’ 이라는 단어들은 문자 자체로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뜻은 의미심장하다. 그것들은 인간이 가진 깊은 병의 언어적 징후인 것이다.

수고를 통한 노동에는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인 노동의 분화와 분업의 요인이 들어오게 되었다.⁶³⁾ 여기에 비극의 법칙, 즉 경제의 법칙이 지배한다. 노동의 전문화는 개인을 총체적 삶과 단절하게 만들었고 개인은 한낱 나사와 같은 부속품이 되었다.⁶⁴⁾ 이러한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는 노동 결과인 상품으로부터 분리를 촉진시켰으며 인간은 자기가 만든 노동의 성과, 즉 여러 상품들 사이에 돈을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⁶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이란 타락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노동의 산물로서 인간의 불균형한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분업과 교환과정에서 가치측정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⁶⁶⁾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명령인 문화명령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를 불문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문화행위 중 하나인 경제행위를 통해서 부를 더욱 확대시켜나간다. 즉 금과 은을 채취하며 동물 식물을 번식케 하며 산업을 통해 물질적 부요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문화명령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부는 선한 것이고 또한 부의 확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명령 중의 하나다. 그러나 타락한 구조 안에서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든 부를 잘못 사용하는 필연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다. 여기서 돈은 부를 왜곡되게 만드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⁶⁷⁾ 즉 돈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타락의 산물이다.

63) Heim, 기독교 윤리, 209-10.

64) Ibid., 210.

65) Ibid., 219.

66) Ibid., 214.

67)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4.

제 3 절 불의한 mammon

이상에서 돈은 타락한 구조 안에서 발생한 것이며 타락한 인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다음에서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mammon을 중심으로 돈의 성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헬라어 'mammon'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람어 '아만'(מָאֵן)으로부터 파생된 것 같다.⁶⁸⁾ 아만은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⁶⁹⁾ mammon은 구약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으나 탈무드, 미쉬나 등에서 돈, 재물, 소득, 보상, 뇌물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⁷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유일한 말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9-13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마 6:24 눅 16:13)

여기서 mammon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mammon을 재물로 보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이 '경제적 대상들의 보편적 개념'이요, '경제적 가치의 보편적 형식'이라면 mammon을 돈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⁷¹⁾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mammon을 의인화시키고 일종의 신격으로 다루고 계신다. 동사인 '섬기다'는 이를 잘 보여준다.⁷²⁾ 즉 mammon이 하나님과 같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돈을 인격화시키고 신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돈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68) F. Hauck "μαμμωνᾶς"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Vol. 4 (Grand Rapids: Eerdmans, 1967), 388.

69)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218.

70) Hauck, "μαμμωνᾶς", 389.

71) mammon에 대한 여러 영어번역들을 보면 흠정역성경(AV), 개역 표준 성경(RSV), 새미국 표준 성경(NASB)에서는 mammon으로, 존 녹스(J. Knox)역은 money로, 새국제성경(NIV), 새영어성경(NEB)에서는 money로 번역했다. 특히, NIV에서 Money로 표기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72) A. W. Pink 산상수훈, 지상우 역 (서울 : 엠마오, 1986), 314.

예수님께서서는 두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맘몬'을 설정하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맘몬을 하나님과 '정반대'⁷³⁾로 '강한 대조적 존재'⁷⁴⁾로 '선택의 대상'⁷⁵⁾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인'⁷⁶⁾으로 설정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형용사적 강조가 아님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맘몬 사이의 병립적 대조관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의 수사학적 어법이 아닌 엄연한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⁷⁷⁾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격으로서의 맘몬은 서로 상반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같이 맘몬도 하나의 주인이다. 즉 맘몬도 인격을 가진 주인이다.⁷⁸⁾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돈을 잘 사용하든지 정직하게 벌라든지 하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주인 중 하나인 맘몬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 비유의 목적이 맘몬의 본질과 성격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에서 맘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⁷⁹⁾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 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7-13)

73) Hauck, "μαμωνᾶς", 389.

74) Schnackenburg, *The Gospel of Matthew*, 71-72.

75) William Hendriksen, *마태복음 (상)*, 김만중 역 (서울: 아가페, 1989), 520-21.

76)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4.

77) Ellul, *사람과 돈*, 84-85.

78) Pink, *산상수훈*, 317.

79) Ellul, *사람과 돈*, 85.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 비유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⁸⁰⁾ 이 비유의 난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여기서는 맘몬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주제는 ‘돈과 재물’에 관한 문제다.⁸¹⁾ 9절과 11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 보인다. 과연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신 ‘불의의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⁸²⁾

일반적으로 이 말은 돈과 재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 가운데 회전되고, 그것이 죄된 목적에 사용될 때 쓰는 말로 알고 있다. 즉 돈에는 부정하게 얻은 ‘불의한 돈’이 있고 정직하게 얻은 ‘의로운 돈’이 있다는 것이다.⁸³⁾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11)라는 구절을 생각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 되어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돈은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당화시킨다.⁸⁴⁾

또한 9절에서 ‘불의한 재물’이 단순히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한다. ‘불의한 재물’ 즉 부정직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되고 결국 부정직한 돈으로는 친구를 사귄 수 있고 정직한 재물로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이 된다.⁸⁵⁾

80) Robert A. Stein, 예수님의 비유,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8), 189. Stein은 이 비유에 다음의 네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이 비유는 어디서 끝이 나는가? ② 청지기는 왜 불의한 자로 불리우는가? ③ 주인의 행위는 납득할 만한 것인가? ④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어떤 부류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는가?

81) Helmut Thielicke,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계준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78), 121.

82) 이 비유의 해석에 관한 여러 관점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25-31. 또한 I. H. Marshall, 루가복음 II, 강요섭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324-27.을 참고하라.

83) Hauck, “μαμωνᾶς”, 390.을 참조하라. Hauck은 “부정직하게 획득한 소유물들”로 본다.

84)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 비유는 재물을 얻기 위해 악한 수단이 정당화되는 교훈이 되고 만다. 전경연, 예수의 비유, (서울: 종로서관, 1980), 100.

85) 흠정역성경(AV), 개역표준성경(RSV), 새미국표준성경(NASB)에서는 τοῦ μαμωνᾶ τῆς ἀδικίας를 ‘불의의 재물’로, Hauck은 킷텔신약신학사전(TDNT)에서 ‘부정직한 돈’으로 번역하여 부정직한 돈의 의미를 부각시켰으나, 새영어성경(NEB)은 세상에 속한 재물로, 새국제성경(NIV)은 세상적인 재물로 번역하였다. Fitzmyer는 불의한 재물을 부정직한 돈으로 해석하는 TDNT에 실린 Hauck의 해석이 5세기에 나타난 잠언 15:27절의 탈굼(Targum)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X-XXIV, AB28A, (NY: Doubleday, 1985), 1109-1110.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은 불의하게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⁸⁶⁾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이 가진 뜻이 무엇인가. ‘불의의 재물’에서 ‘불의의’는 성격 등을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돈의 성격이 불의함을 보여준다.⁸⁷⁾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 한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 즉 돈의 성격이 불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불의의 재물’은 11절에서 ‘참된 것’과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재물이 순수하지 못한 것,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 기만적이고 곧 없어질 것을 의미하는⁸⁸⁾ 반면에 ‘참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며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참된 것과 불의의 재물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⁹⁾

그렇다면 왜 돈이 불의한가? 그 불의는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대칭적 대립적 대상으로 보시고 신적인 의의를 부여하신 것에서 크나큰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정사와 권세가 모두 돈과 관련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과 세계를 움직이는 데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 정사와 권세와 매우 밀접하고도 깊숙하게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86) 이런 해석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오덕호는 지적한다.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217-18.

87) Blass와 Debrunner의 문법책에는 τῆς ἀδικίας를 히브리어 용법의 영향을 받은 특성의 소유격(The genitive of quality)로 본다.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and ed. Robert W. Fu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91. 이 소유격은 명사 뒤에서 명사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이름 붙여 수식한다. 이것은 단순히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또 그렇게 번역된다. 따라서 τοῦ μαμωνᾶ τῆς ἀδικίας는 곧 돈의 특성이 불의하다는 것을 말한다. Young은 속성의 소유격(Attributive Genitive)라고 부르기도 한다. R. A. Young,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Cincinnati: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24-25. 또한 Maximilian Zerwick,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n, trans. and revised Mary Grosvenor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93), 246.과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Illustrated by Examples, trans. Joseph Smith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94), 14-15.를 보라. 오덕호 역시 “불의한 재물”이란 본질적으로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재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오덕호, 219. 한편, 어떤 학자들은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Joel B. Green,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13.

88) William Hendriksen, 누가복음 (하), 김유배 역 (서울: 아가페, 1993), 52.

89) Marshall, 루가복음 II, 333.

고 본다. 맘몬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고유의 법칙을 가진 영적 존재와 결합되어 있다.⁹⁰⁾ 마치 사마리아의 인격적인 힘으로 등장하듯이(롬 5:17-21) 돈이 인격적인 힘으로 등장한다. 죽음이 사탄의 세력이듯이 돈은 사탄의 세력으로 나타난다.⁹¹⁾ 그래서 F. 호크(F. Hauck)는 맘몬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력(demonic power)을 지적하고 있다.⁹²⁾ 존 밀턴(J. Milton)은 그의 실락원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멀지 않은 곳에 산이 있어, 그 무서운 산꼭대기에서 불과 연기의 소용돌이를 내뿜고, 그 나머지는 온통 윤기 나는 비듬으로 빛난다. 틀림없이 그 태내에 금광이 묻혀 있는 증거. 그리로 황급히 날개 치며 매의 떼들이 급거 향한다. 마치 삼과 곡괭이로 장비를 갖춘 공병대가 들에 참호를 파고 포루 쌓으려 왕의 진영에 앞서 달리듯 맘몬이 그들을 인도한다. 맘몬, 하늘에서 떨어진 가장 저속한 영, 하늘에서도 그의 시선과 생각은 항상 아래로 향하여 하나님을 뵈고 즐기는 거룩한 것보다는 황금을 밟는 천국의 부를 더욱 찬탄했다. 처음에는 인간들도 그에게 이끌려 그의 암시를 받아 어머니인 대지의 내장을 빼앗아냈다.⁹³⁾

밀턴은 여기서 맘몬을 사탄으로 보여주고 있다. 앙드레 비엘러(Andre Biéler)가 그의 책에서 맘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인간의 책임은 돈과 재물을 선용하는 것이었지만, 죄의 영향과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책임은 파괴되고 말았다. 이제 타락구조 안에서의 돈은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 돈은 악의 도구(the instrument of evil)가 되었고 돈과 사탄과의 협력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지배하고 있다”⁹⁴⁾라고 말한 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우리는 돈이 사탄의 도구로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1-11절에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던 아름다운 모습이 붕괴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온다. 돈 때문에 거짓행동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

90) Ellul, 사람과 돈, 94.

91) Ibid., 84. 또한 Martin Hengel, 초대교회의 사회경제사상, 이정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45-46,을 보라.

92) Hauck, “μαμμωνᾶς”, 389.

93) John Milton, 실락원, 이창배 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9), 26-27.

94)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4.

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행 5:3)고 말한다. 여기서의 땅값은 곧 돈이다. 특별히 유의하여 볼 것은 돈이 세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되었다는 사실과 돈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와해되는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다.⁹⁵⁾ 특히 돈을 가운데 두고 성령과 사탄이 대치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또 박해받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흩어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행 8:13), 시몬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을 보고 이것을 돈을 주고 사려하자 사도 베드로는 그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저주를 내렸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하여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⁹⁶⁾에 매인 바 되었다”고 하면서 사탄과의 관련을 말하고 있다.

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그의 스승을 돈 때문에 팔려고 한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다가 어떤 동기에서 그의 스승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⁹⁷⁾ 그가 변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치적 이유보다는 도덕적인 잘못, 즉 탐욕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⁹⁸⁾

그때에 열들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마 26:14-16)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부터였다(눅 22:3).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삼십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구체적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유다가 예수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사복음서 모

95) 행 2:43-47; 4:32-37; 5:1-11절에 나타난 초대기독교회의 공동생활은 역사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정도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구속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해야한다. 이것은 출 16:13-24절에 나타난 만나 사건과 아울러 고후 8:13-15절에 나타난 바울의 교훈을 함께 음미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다 Richard J.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한화통 역 (서울: IVP, 1997), 121-35.

96) ‘불의에 매였다’(σύνδεσμον ἀδικίας)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눅 16:9절에서 사용된 ἀδικίας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97) John Stott,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73-76.

98) Ibid., 74-76.

두가 증거한다⁹⁹⁾ 이처럼 사탄은 돈을 통해서 그의 활동을 구체화시킨다.

또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활동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마 28:12) 소위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한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갖가지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세계에 대한 계시에 속한다.¹⁰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을 주목해 보면, 여기서 짐승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이 표가 없는 자에게는 매매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매행위가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사건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매행위 없는 인간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기할 만한 것이다.¹⁰¹⁾

앞에서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매매행위는 곧 교환행위이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개재된다. 즉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인 사탄이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음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다.

돈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돈은 교묘하게(subtly) 그리고 비밀스럽게(secretly)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¹⁰²⁾

사탄의 강력한 도구인 돈의 공격 앞에서 제한적 존재인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돈 앞에서 연약하고 순진할 뿐이다. 우리가 돈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와 싸우는 권세와 정사의 도구로서의 돈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99) 마 26:14-16; 막 14:10-11; 눅 22:13-16; 요 13:2, 27, 30.

100) Poythress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했던 주요 방식들을 ① 과거주의자들(Preterists), ② 미래주의자들(Futurists), ③ 역사주의자들(Historicists), 그리고 ④ 이상주의자들(Idealists)로 구분하며, 이중 역사주의자들의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해석 유형들을 통합한다. 곧 계시록의 6:1-18 24절까지를 1세기의 기독교 정황 속에서 구체적인 구현을 가지되, 다중적인(multiple) 성취를 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고 본다. Vern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2), 23-36.

101) Kraft는 매매와 관련된 짐승의 표를 동전(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Heinrich Kraft, 요한묵시록, 박재순, 최미영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81. Beale은 14:1절의 참성도의 표지와 의 평행을 근거로 짐승의 표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로마의 동정이 짐승의 표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9), 715-16.

102)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4.

믿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우리의 자만심과 순진성 때문이다.¹⁰³⁾

마귀의 힘과 교활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정사와 권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순진한 생각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엡 6:13).

제 4 절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

분명 돈은 돈 이상의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의식에서 물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의식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즉 생산관계의 총화로서의 경제구조가 상부구조 즉,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일반을 규정하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상부구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지만 인간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 및 경제구조라고 말한다.¹⁰⁴⁾

마르크스가 그의 최대의 역작인 자본론을 '상품과 돈'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상품과 돈의 물신적(物神的) 성격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⁰⁵⁾ 그것은 곧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토대를 이루는 경제구조의 핵심이 상품과 돈이라는 말이다. 돈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적만큼 강력한 것은 없으며¹⁰⁶⁾ 그런 의미에서 자본론에서 마르크스의 돈에 관한 분석은 참으로 진지하고 치밀하다.

필자는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을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매우 비성경적 사상이요 반신적(反神的)인 사상인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돈이 현실적으로 또 매우 실제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돈의 현

103) Stott,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338.

104) Ibid., 111-19, Frostin은 여기서 토대(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련성의 문제를 고찰한다.

105) Marx, 자본론, 91. Marx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상품과 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의 위대한 저서 자본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Marx는 상품과 돈에 대한 고찰에 100쪽 이상 할애한다.

106) 서철원, 신앙과 학문,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271.

실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적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치한 관념론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존 화이트(John White)가 금송아지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유물론과 공산주의 유물론의 양대 유물주의 진영에 나누어진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 유물론은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하고 자본주의 유물론은 물질만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¹⁰⁷⁾ 참으로 현대인은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말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끝없는 소유지향의 탐욕 속에 빠져 있다.¹⁰⁸⁾

돈과 경제구조가 인간과 세계를 지배한다는 마르크스의 지적은, 비록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배후에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무시한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지만,¹⁰⁹⁾ 그러나 보이는 세계의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돈의 신적 위력을 보았다는 점에서는 그의 탁월한 안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¹⁰⁾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서 맘몬을 하나님과 병립적 존재로 제시하고 맘몬이 인간의 주인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강조용법 이상의 맘몬의 현실성을 보셨기 때문이며¹¹¹⁾,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도구로서의 돈의 위력을 간파하신 계시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맘몬은 이제 모조 하나님으로서 등장된다.¹¹²⁾ 맘몬은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요구하며, 인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전능성, 초월성, 거룩성이라는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마찬가지로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도 그와 똑같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려 한다.

첫째,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은 전능성을 가진다. 돈은 어디든지 침투할 수 있

107) John White, 금송아지, 오태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42.

108) Erich Fromm, 소유냐 존재냐, 한완상 역 (서울: 전망, 1978), 13-28.

109) Paul Tillich,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234.

110) Os Guinness 역시 돈을 단순히 경제적 이슈로만 다룰 수 없고, 돈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힘이 있음을 지적한다. Os Guinness, Doing Well and Doing Good, (Colorado: Navpress, 2001), 79-80.

111) Ellul, 사람과 돈, 84-85.

112) Ibid., 109.

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특수한 욕구나 삶의 형식에 봉사한다.¹¹³⁾ 신앙, 국가 및 형이상학적 사고의 차이에 따른 갈등 때문에 서로 결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돈은 어느 쪽을 불문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거의 모든 목표들에 똑같이 봉사한다.¹¹⁴⁾ 돈은 이렇게 철저하게 대립된 파벌들 사이에서도 봉사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¹¹⁵⁾ 돈을 싫어하는 사람과 사회는 없다.

마르크스는 그의 경제학 철학 소고에서 “돈은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존재의 전능성이다”¹¹⁶⁾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의 두 가지 이중적 속성을 말한다. 하나는, 돈이 모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속성들을 정반대의 것으로 변화시키고 사물들을 전반적으로 뒤집고 전도시키는 가시적인 신이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돈은 창녀이며 인간과 서민들의 일반적인 투쟁이라는 것이다.¹¹⁷⁾ 돈은 절대자와 비교해보면 불완전하지만 모든 외부적인 실천적 사물들 중에서 절대자의 능력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이다.¹¹⁸⁾

둘째,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은 초월성을 가진다. 사물들이 모두 경제적인 대상일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 대상이 되려면 그것들은 돈에 의해 구체화된 가치평가법칙에 복종해야 한다. 즉 돈은 경제적 대상들의 보편적, 추상적 개념이다.¹¹⁹⁾ 동시에 돈은, 중력의 법칙이 물체들의 크기와 그 물체들의 무한히 다양한 운동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재화들의 관계를 표현하면서도 그 재화들의 흐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셋째,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은 거룩성을 지닌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거룩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 문제는 중대한 것이다. 사랑이니 정의니 지혜니 생명이니 하는 것 따위는 말뿐이다. 흔히 인간관계에서 돈 이야기는 꺼린다. 돈 이야기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장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어느 좌석이든 돈 문제만 나오면 엄숙해진다.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성과 죽음에 대해서까지

113) Simmel, 돈의 철학, 620.

114) Ibid., 621.

115) Ibid.

116) Marx, 경제학 철학 소고, 114.

117) Ibid., 117.

118) Simmel, 돈의 철학, 622.

119) Ibid., 628.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침실로 가서 문을 닫고서야 이야기한다.¹²⁰⁾

돈에 대한 거룩한 감정은 모든 사람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¹²¹⁾ 이렇게 돈은 전능성, 초월성, 거룩성을 가지면서 모조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경배를 요구한다. 돈은 인간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앙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돈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쁨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돈은 인간에게 끝없는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돈이야말로 인간에게 최고선¹²²⁾이요 숭배의 대상¹²³⁾이다. 이러한 돈의 사탄적 성격은 타락한 세상과 인간 속에서 무한한 욕망을 재촉함으로써 갖가지 돈의 왜곡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120) Richard Poster,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빛과 소금, 1986년 3월호, 62.

121) Ellul, 사람과 돈, 86.

122) Marx, 경제학 철학 수고, 116.

123) Marx, 자본론, 91.

제 4 장

돈과 신앙: 실존적 문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의 성격을 생각할 때 돈에 대한 순진성, 즉 돈만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돈의 문제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초월한 듯한 자세로 돈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본다든지 하는 낙관적 생각들은 돈의 가면을 보지 못한 것이며 아직 돈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순진한 생각은 벌써 우리를 돈의 유혹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돈은 우리에게 윤리적 차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제 1 절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마 6:21).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물음에 직면한다.¹²⁴⁾ 즉 하나님이나 돈이나 하는 문제다. 이제 사랑의 문제와 헌금의 문제를 통해 돈과 신앙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랑의 의미

우리는 돈 앞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돈의 문제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를 제기한다. 돈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아직 신앙의 선택과 결단에 직면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6-22절에 나타난 부자 청

124) Ellul, 사람과 돈, 104.

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 청년은 찾고 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물음은 바르고 진지한 것이었다.¹²⁵⁾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6)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20) 하고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반문했다. 이런 말로 미루어 보아 청년은 종교 의식적인 면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남아 있다. 바로 돈의 문제다. 그는 이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하는 갈림길에 섰다.¹²⁶⁾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21)는 예수님의 결정적 질문 앞에 서야 했다.

그는 결국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22). 순종과 신앙을 모두 버린 것이다. 솔직하게 예수와 작별한 것이다. 청년은 진지한 자유를 얻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 순간 그는 최소한 정직하였던 것이다.¹²⁷⁾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누구나 돈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6장 19-24절은 돈의 실체와 돈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곳보다 잘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οὐ δύνασθε θεῷ δουλεύειν καὶ μαμωνᾷ).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N. Ridderbos)는 이 본문에서 사랑의 문제가 가장 명백하게(nowhere clearer than)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¹²⁸⁾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근본적인 선택(radical choice)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¹²⁹⁾ 이 말은 자주 사용되는 회심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¹³⁰⁾

125)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54.

126) Ibid., 59.

127) Ibid., 63.

128) Herman 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398.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의지의 완전한 굴복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논의에 또 하나의 빛을 던져준다.¹³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 은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성실성의 결여나 통속적이고 의식적인 면에서 외식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¹³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돈의 진정한 핵심은 ‘신앙’ 문제¹³³⁾요, ‘윤리 이전의 결단’ 에 관한 문제다¹³⁴⁾. 이런 면에서 돈의 문제를 한낱 윤리적 문제로 약화, 전락시킴으로써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서는 안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와 재산에 관한 교훈의 특징은 단순히 부와 재산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나, 모든 재산을 무조건 처분하라든가,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든가 하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돈에 대한 사랑과 선택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¹³⁵⁾

2. 사랑의 성격

이상에서 돈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 즉 믿음의 문제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직면하여 선택과 관련한 윤리 이전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보았다. 여기서는 ‘사랑의 성격’ 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34절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6장 19-34절의 주제는 ‘돈의 문제’¹³⁶⁾로 크게 두 매듭으로 분류할 수

129) Herman N. Ridderbos, 하나님 나라, 398.

130) Ibid.

131) Ibid., 401.

132) Ibid.

133) Ibid.

134) Ibid., 402.

135) Ibid., 405-13. 또한, Bonhoeffer, 나를 따르라, 62.

136) Hendriksen은 마태복음 6장 19-34절의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무한한 신뢰’라고 불리고 ① 6:19-21 ② 6:22-23 ③ 6:24 ④ 6:25의 네 부분으로 나눈 다음 이것들이 모두 믿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 Hendriksen, 마태복음 (상), 513-14. 그러나 Lloyd-Jones는 무엇보다 이것을 돈과 관련해서만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있다. 첫째 매듭은 19-24절까지로 사랑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둘째 매듭은 25-34절까지로 불완전한 사랑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다시 6장 19-24절은 세 가지 내용¹³⁷⁾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마음의 문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은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마 6:19-21)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결정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대조시키면서 하늘의 보물의 ‘안전성’과 동시에 땅의 보물의 ‘불확실성과 부패성’을 지적하신다.¹³⁸⁾

예수님께서서는 세 가지 비유 곧 좀, 동록, 도적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돈에 의한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에 의해서 부패되고 지상에 있는 것들의 속성인 폭력과 사기에 의해서 파괴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재물의 상대적 무가치성을 강조하시고 있다.¹³⁹⁾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대조 속에서 진정한 보물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신다. 이 말은 단지 현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두 곳에 동시에 들 수 없다. 관심과 이해는 두 곳에 미칠 수 있으나 마음은 한 곳을 향한다.¹⁴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

즉 여기서 말하는 ‘보물’의 의미는 돈보다 더욱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D. M. Lloyd-Jones, 산상설교집 (하),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92), 110-11.
137) 많은 논의가 있지만 마태복음 6:19-32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6:19-24절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훈은 대체로 누가복음과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다. ① 마 6:19-21=눅 12:33-34 ② 마 6:22-23=눅 11:34-36 ③ 마 6:24=눅 16:13. 복음서 간의 병행대조를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K. Aland ed.,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10th edition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ies, 1993), 57-59.

138) Arthur W. Pink, 산상수훈, 274-81.

139) Ibid., 275.

140) Lloyd-Jones, 산상설교집 (하), 131.

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을 향한다. 돈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선택과 사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⁴¹⁾

둘째는, 눈의 문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
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 6:22-23)

사랑은 마음의 문제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문제임과 아울러 ‘눈의 문제’ 이
며 그 눈에는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다.¹⁴²⁾ 눈이 성하고 적절하게 기능할 때 사물을
올바로 파악하고 온몸이 밝아진다. 만일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사물을 혼동하고 분별없이 이해하게 된다. 눈은 식별과 판단을 의미한다.¹⁴³⁾
눈이 성하면 참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눈이 나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다(엡 1:18). 그런데 이 눈의 문제는 돈의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의 눈이 돈에 의해 시
력을 흐리게 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바른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돈
은 우리의 시력을 나쁘게 하고 나쁜 시력은 하늘의 보물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다.¹⁴⁴⁾

셋째는, 섬김의 문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
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마음’과 ‘두 눈’에 이어 더욱 기본적인 선택(basic
choice)인 ‘두 주인’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¹⁴⁵⁾ 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19-21)와 ‘가

141) Hendriksen, 마태복음 (상), 520-21.

142) Ibid., 347.

143) Pink, 산상수훈, 291-92.

144) H. A. W. Meyer,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eyer'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NY: Funk and Wagnalls Pub., 1884), 154. 반면 “온전한 눈의 결과는 잘 비침을 받은 몸이다.(The result of such a sound eye is a well-illuminated body.)” R. T. France, Matthew,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VP, 1985), 139.

145) D. A. Carson, Matthew,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치의 문제'(22-23)와 함께 '섬김의 문제'를 제기한다. 리차드 렌스키(R. C. H. Lenski)가 지적한 대로 먼저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다른 무엇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¹⁴⁶⁾

앞에서 우리는 mammon의 신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돈이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하나님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나에게 진정한 보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서는 두 주인, 곧 하나님과 돈 중 하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길 것을 선택하라고 하신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다.¹⁴⁷⁾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사랑 아니면 미움이라는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간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mammon을 겸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안된다. 통합도 반반도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¹⁴⁸⁾ mammon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mammon을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유혹에 빠진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가 생긴다고까지 생각한다.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인가?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자가 못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좇는 자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 곧 mammon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가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Zondevan, 1981), 178.

146) Richard Lenski, 마태복음, 문창수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3), 247.

147)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Οὐδείς δύναται δυοῖς κυρίοις δουλεύειν.) Οὐδείς는 이 구절에서 no one, no body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과 mammon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강한 어조인 것이다. W. F. Arndt, F. W. Gingrich, and F. W. Dank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735. 한편 Hill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나눌 수 없다'(Loyalty to God must be undivided)라는 주석을 통해 강한 어조를 잘 표현한다.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2), 143.

148) Ellul, 사람과 돈, 126.

하신다. 누가 주인이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이 문제가말로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것이 돈의 문제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19-24절이 사랑의 의미가 즉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이라면 마태복음 6장 25-34절은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다(25, 31, 34).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한 어조의 명령이다.¹⁴⁹⁾ 불완전한 믿음은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염려는 마음의 ‘분열’을 의미한다.¹⁵⁰⁾ 염려는 나누어진 마음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마음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마음이요, 어수선한 마음이다.¹⁵¹⁾ 그러므로 염려는 아더 핑크(A. W. Pink)의 말대로 ‘하나님을 몹시 모독하는 일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중대한 죄’인 것이다.¹⁵²⁾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염려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돈과 관련되어 있다. 염려는 하나님과 mammon 사이에서 아직 선택을 보류한 상태요 mammon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는 위선이요 우상숭배요 불신의 표현인 것이다.¹⁵³⁾

제 2 절 헌금의 문제

인간은 누군가를 의뢰하고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 우리는 앞에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 mammon,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mammon에 대해서 보았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다.

149) Lenski, 마태복음, 251. 원문에는 $\mu\iota$ 와 결합한 금지의 명령법(imperative of prohibition)이 사용되었다. 참조,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87.

150) Hauck, “ $\mu\alpha\mu\mu\omega\acute{\nu}\alpha\varsigma$ ”, 658.

151) Hendriksen, 마태복음 (상), 522.

152) Pink, 산상수훈, 5.

153) Warren W. Wiersbe,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vol. 1, (Wheaton: Victor Books, 1989), 27-28.

1. 믿음(사랑)은 돈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사랑의 진정성의 문제는 '헌금의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헌금의 문제는 단지 예배할 때 드리는 약간의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복종시킨다는 의미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했듯이 사랑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되어야 한다. 사랑의 대상으로 두 주인인 하나님과 mammon이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는 mammon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섬김은 mammon을 미워하고 경히 여김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진정한 섬김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¹⁵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약 2:14-22).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에 대한 행동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없을 때 그 모든 말은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돈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다(Hence Money always puts man to the test).”¹⁵⁵⁾ 앙드레 비엘러의 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읽어내신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수학적으로(exactly and mathematically) 보여드리며 이것은 또한 그럴듯한 입술의 말과 경건한 감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준다.¹⁵⁶⁾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 (눅 16:14)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들은 조그만 소득의 십일조까지도 세심하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돈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야 한다.¹⁵⁷⁾

154) Ellul, 사람과 돈, 119.

155)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1.

156) Ibid.

157) Ellul, 사람과 돈, 124.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과 동시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부와 가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¹⁵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마 6:11).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다음의 두 구절을 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학 2:9)
 여호와와 그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 2:7)

돈이 비록 나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한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¹⁵⁹⁾ 그것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잘못된 수단에 의한 돈은 결국 우리가 사탄의 유혹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맘몬이 하나님의 왕좌에서 강등되었음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¹⁶⁰⁾

둘째, 먼저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¹⁶¹⁾ 나머지는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 말은 무엇보다 돈 문제가 우리 삶에 중심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돈은 우리의 참된 가치나 일차적인 가치의 대상이 아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⁶²⁾ 이 말은 돈을 버는 데 태만하거나 계을

158) Ellul, 사람과 돈, 124-25.

159) Ibid., 126.

160)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6.

161) Ellul, 사람과 돈, 126.

러도 된다거나 돈에 대하여 무관심 하라는 말은 아니다. 새처럼 일도 안 하면서 하늘 양식을 기다릴 수는 없다. 아니 새도 부지런히 날아야 먹을 것이 주어진다. 그러나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돈에 집착하거나, 돈이 우리의 염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하는 문제는 흥미롭다.¹⁶³⁾ 돈의 사탄적 성격은 돈으로 하여금 인간의 무한한 탐욕의 대상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돈의 양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은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가 될 것을 보장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과 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1-12)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떡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일용할 양식 즉 필수품에 대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전도서의 기록자가 말하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전 5:10)는 데서 잘 나타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요한 자인 것을 가르쳐준다.

2. 현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1-14절의 ‘불의한 청지기’에서 본 바와 같이 ‘맘몬’은 불의한 성격을 띠고 타락한 세계 안에서 활동을 한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돈 자체는

162) Ellul, 사람과 돈, 126-27.

163) 톨스토이(L. N. Tolstoi)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은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조, L. N Tolstoi, 톨스토이 단편선, 박형규 역 (서울: 인디북, 2003), 269-304.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¹⁶⁴⁾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일지라도 선한 곳에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일지라도 선하게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다.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니다. 청지기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선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잠 14:14)

이제 돈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듯이 새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회복을 시작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는 돈도 창조자의 선함을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돈은 결코 축적의 대상이나 쾌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눅 12:31).

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 고백의 신실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이다. 축복이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청지기적 사명을 다했느냐에 있다. 돈은 돈이 가진 속성상 타락한 인간을 그 울무에 빠지게 한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보다는 불의한 도적이 되게 하기 쉽다. 그러므로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의 다음과 같은 말은 깊이 음미할 만하다.

만일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대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도다.¹⁶⁵⁾

이러한 관점에서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진다. 이제 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 고백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돈은 참으로 영적인 사명(a spiritual mission)을 가지고 있

164) William Barclay, 기독교윤리학, 한중식 역 (서울 : 양서각, 1985), 197.

165) “If a man owns many material things it is not so much a matter for congratulation as it is a matter for prayer, that he may use them as God would have him to do.”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Matthew, revised ed. vol. 1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252.

다.¹⁶⁶⁾

그러면 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크 엘룰의 말대로 역대상 29장 16절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에서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을 보여주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다.¹⁶⁷⁾ 솔로몬은 그에게 생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부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했다.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 3:9)

그리스도인은 현재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청지기에 불과하고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호 2:8).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벌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되심을 거절하는 것은 그 즉시로 부를 바알과 사탄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이 된다.¹⁶⁸⁾

둘째로 돈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존 스토틀(J. R. W. Stott)는 디모데전서 6장 18-19절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이토록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후하게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후하심을 본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큰 필요 때문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¹⁶⁹⁾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부의 대가이고 그것이 부를 옳게 쓰는 유일한 길이다.¹⁷⁰⁾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그의

166)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1.

167) Ellul, *사람과 돈*, 44.

168) Ibid., 45.

169) John R. W. Stott, *디모데전서, 디도서 강해*, 김현회 역 (서울: IVP, 1999), 223. 그의 계속되는 해설은 청부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많은 기독교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세계 인구의 오분의 일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양심은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부유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희생적으로 관대해지려 한다면 이 것처럼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가난한 형편에 처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계속 부자로 남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170) Ellul, *사람과 돈*, 53. 또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119-51.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정직하게 벌
 었든 합법적으로 벌었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쓰지 않
 는다면 강도나 다름없다. 내 것을 내가 쓴다 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남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오. 태양이나 공기, 땅과 그밖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공동소유입
 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쓰지 않는 소유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¹⁷¹⁾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한다.
 잠언서의 저자는 왕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잠
 35:9).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는 일은 덕행이나 공적이 아니라 단지 의무를 행
 하는 것일 뿐이다. 가난한 자는 그가 불쌍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¹⁷²⁾ 로널드 월레스(Ronald S. Wallace)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칼빈
 (John Calvin)에게 있어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을 주어야 할 근거는 다음의 2가지이다. 곧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교제의 확실한 띠로 사람들을 연합시켜 놓으셨다는 것이다.¹⁷³⁾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다(눅 16:19-31).
 이것은 두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다.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
 식을 먹었다.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나사로였다. 그는 온몸이 궤양으로 혈어 성한 곳이 없는 거지여서 개들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매일 부자의 대문 앞에서 식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이 세상이 아닌 내세의 세상이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 중에 있고 가난
 한 사람은 행복 속에 있다.

이 비유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비유의 바로 앞 구절에는 ‘돈을 좋아하

171) John C. Haughey 편,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성명 역 (왜관 : 분도출판사, 1980), 134-35.
 에서재인용.

172) Ellul, 사람과 돈, 53.

173)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190-97. Wallace는 칼빈에게 있어서 자연의 질서 내에
 서의 상호 교제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께서 교제의 띠로 사람들을
 연합시켜놓으심, 그리고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이 셋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가난한 자에
 게 사랑을 베푸는 근거로서도 제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다루었다.

는' 바리새인에 관한 언급이 있다(눅 16:14). 그러므로 이 비유는 돈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비유에서 가차없이 정죄되고 있는 것은 부자의 무책임과 무관심이다.¹⁷⁴⁾ 이 비유에서 부자가 어느 면으로도 가난한 나사로에게 행동으로 가혹하게 했다는 암시가 없다. 그는 나사로가 그의 대문에 있는 것을 허락했으며 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게 하였다. 다만 문제는 그가 나사로를 전연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¹⁷⁵⁾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비유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무책임한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¹⁷⁶⁾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때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비엘러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다(A man is always rich to somebody)"¹⁷⁷⁾라는 말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다. 극히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자라고 볼 수 있다. 돈에 관한 칼빈의 교훈은 "소유에 관한 전적인 포기가 아니라 단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소유하라"는 것이다.¹⁷⁸⁾

174)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Luke, revise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211-13. Barclay는 이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다. "결코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의 형벌"(The Punishment of the Man who never noticed) 이것은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했던 부자의 죄를 잘 지적해 주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175) 정종성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되는 5개의 비유의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곧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되는 5개의 비유의 타겟 청중은 바리새인이며,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문지방 넘기를 거절할 때 오는 심판의 결과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종성, "예수님의 비유(눅 15-16장)와 바흐친 독자(Bakhtin Reader)", 누가복음 새로 읽기: 문학적 읽기의 이론과 실제, 신약연구 시리즈 1권 (서울: 한들, 2001), 177-81. 김경진 역시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되는 비유들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처럼 재물을 낭비하고 또한 불우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결과 부자가 맞은 운명은 음부의 고통에 떨어진 것이었다.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 당하는 부자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재물을 낭비하는 부자들에게는 무섭고 효과적인 경고였을 것이다. 김경진, "누가신학의 재물관", 신약성서의 경제윤리, 신약논단 4권 (서울: 한들, 1998), 99-101.

176) Barclay, 기독교윤리학, 193.

177)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2.

178)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223.

3.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일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마가복음 12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 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막 12:41-44).

예수님께서서는 무리가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서 이처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중요성, 즉 헌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¹⁷⁹⁾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계신다.¹⁸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공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마 19:16-22; 막 10:17-30; 눅 18:18-30)는 하나님께 얼마나 바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

179) Ellul, 사람과 돈, 104.

180) William Hendriksen, 마가복음 (하), 최태영 역 (서울: 아가페, 1993), 238-45.

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 19:16-22).

이러한 교훈을 단지 상징적 교훈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실행할 것인가¹⁸¹⁾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 명령이 어느 부자 청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면서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이 예외적인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¹⁸²⁾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도 있지 않은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

위의 말씀에서 제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는 점¹⁸³⁾을 고려할 때 엘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 각자는 그러한 소명을 받을 가능성에 늘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¹⁸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조만간 우리에게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아니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¹⁸⁵⁾

리델보스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철저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어떤 한정된 사람,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된다는 견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말한다.¹⁸⁶⁾ 본철편 또한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구차한 변명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¹⁸⁷⁾ 그는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드림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친구와 아버지 집을 버렸다. 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나그네가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것이다. 그후 그는 어렵게 자식을 가졌다. 얼마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다. 아

181) Ridderbos, 하나님 나라, 406.

182) Ellul, 사람과 돈, 133.

183) Ridderbos, 하나님 나라, 406. 한편 Schweizer는 이 명령이 일반적인 것임을 부정한다. E. Schweizer, 마태오복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408-409.

184) Ellul, 사람과 돈, 97.

185) A. W. Tozer, 하나님을 추구함,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33.

186) Ridderbos, 하나님 나라, 406-407.

187) Bonhoeffer, 나를 따르라, 62-68.

브라함은 약속이 이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를 지낼 장소를 안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던 그의 종들도 몰랐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이 음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완전한 외톨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들었고 그 말씀을 정신화하지도 않고 그 부르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과감히 순종하였던 것이다. 제물은 자신의 귀한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를 위하여 칼을 들었다. 그러나 행동을 하려던 순간 그의 희생은 모두 돌려 받았다(창 22:10-11). 그는 아들을 다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좋은 제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360도의 전환이다. 이삭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지 않은 것처럼 가진 것이다.¹⁸⁸⁾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이 이삭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모든 사정은 달라졌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다. 그러나 사실은 낡은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¹⁸⁹⁾ 우리에게 있는 돈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 모두 드림으로써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앞의 과부의 바침에 대한 교훈으로 돌아가 보자. 과부는 두 렵돈을 드렸다. 두 렵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만 원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액수인 것만은 분명하다.¹⁹⁰⁾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액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었다. 부자들은 힘 안 들이고 '중요한 증에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증에서 '모든 것'을 드렸다. 즉 과부는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을 드렸다.¹⁹¹⁾

188) Bonhoeffer, 나를 따르라, 83-84.

189) Ibid., 84.

190) 돈의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렵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Hendriksen, 마가복음 (하), 240. 다만, 이 화폐는 마카비 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그 크기가 작아 찍힌 글자를 읽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한 세겔의 1/400 정도의 가치였다고 하니, 얼마나 작은 액수였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illiam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442. 세겔에 대해서는 마 17:24를 참조하라.

191) Gniska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과부의 헌금이 더 많고 더 진실하다. 소유에 대한 내적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두고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특별히 강조하며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녀가 드린 이 동전 두 닢은 변적이는 다이아몬드였다.¹⁹²⁾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헌금은 양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질적으로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택의 진정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증거 되어야 한다.

4. 십일조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한다면 십일조에 대한 교훈은 어떻게 되는가? 십분의 일만 드리란 말인가?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으로 돈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가?

십일조에 관한 한 한국교회는 그 본질이나 의미보다는 방법론에만 관심을 보여 온 것 같다.¹⁹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분의 일이라는 기준을 지나치리 만큼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기만 하면 십일조 폐지론자로 쉽게 간주해버리려 한다.¹⁹⁴⁾ 또 하나의 문제는 십일조를 드리는 자의 일반적인 의식이나 동기를 ‘복과 저주’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자유 때문에 헌금하는 행위가 더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 행위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그 행위를 가치있게 한다. 그녀가 헌금한 것은 그녀가 지금 지닌 것 전부였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는 당장 내일 필요한 생활비 전부였다.” Joachim Gnllka, 마르코 복음 (II),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38.

192) Hendriksen, 마가복음 (하), 238-45.

193)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신학정론 제8권, 334.

194) 조누가, 십일조를 넘어서: 기독교인가, 매머니즘인가 (서울: 베들북, 1999), 157. 조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십일조 시대가 지났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은 원래 십일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중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출교를 당하기 십상이었다.” 조누가 자신은 이 책에서 십일조의 폐지를 주장한다. 이런 폐지에 대한 반대로는 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이 있다. 김인환은 하나님께서 오경의 십일조 제도(Pentateuchal Tithe Institution)의 외형적 형태를 폐하시고, 성경적 십일조 제도(Biblical Tithe Institution)을 새로이 세우셨다고 함으로 그 원리와 목적들이 여전히 계승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그 원리와 목적들이 계승되는 성경적 십일조란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를 인정하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Ibid., 319-23.

점이다.¹⁹⁵⁾ 이러한 점들을 전제하면서 십일조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통한 진정한 십일조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십일조의 시작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한 첫 언급은 창세기 14장 18-20절에 나타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 14:18-20)

성경 계시의 유기적 발전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아브라함 시대 이후의 모든 십일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기본적인 십일조의 원리는¹⁹⁶⁾ 첫째, 바치는 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다. 둘째, 바치는 자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로서 드리는 예물이다. 셋째, 바치는 자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드리는 예물이다.

위의 세 가지 기본원리들은 야곱의 십일조 약속에서도 드러난다(창 28:22). 야곱의 약속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을 전체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서원을 한다(창 28:20-22). 야곱의 십일조 약속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사랑과 신뢰의 표시로 나타난 것이다.

나. 십일조의 율법화

십일조에 대한 계시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보다 자세하게 나타난다.¹⁹⁷⁾ 첫째 진

195)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334.

196) Ibid., 335. 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56-61.

슬은 레위기 27장 30-33절에 있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레 27:34 참고) 둘째 진술은 민수기 18장 21-32절에 있는 대로 아론과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은 신명기 14장 22-29절과 26장 12-15절인데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세 구절 가운데서 십일조의 원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리¹⁹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삼년에 자신들의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따로 떼어내어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젃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공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언약의 축복으로 그 땅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는데 그 반응이 바로 십일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드리는 자가 자기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며 그 땅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인 것이다.¹⁹⁹⁾ 이처럼 십일조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십일조 중에서 십분의 일을 바쳤던 것이다(민 18:24-29 참고).

십일조의 둘째 원리는 십일조의 용도다.²⁰⁰⁾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십일조의 용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를 위한 십일조(민 18:21-26), 둘째 레위인들을 위한 십일조(민 18:21-32), 셋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신 14:28-29, 26:12-13)인데 이는 세 가지 종류의 십일조로 이해하기보다는 세 가지의 용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²⁰¹⁾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97) 박운선, *헌법주석*, (서울: 영음사, 1983), 111.

198)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337.

199) Ibid., 338.

200) Ibid., 339.

201) 상이한 세 개의 십일조 규정들은 십일조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십일조의 세 가지 용도로 봄이 타당하다. M. 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83, 87-88.

다. 종교적 쇠퇴기의 십일조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물들어져감에 따라 성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해이해지고 당연히 십일조 드리는 일도 소홀히 되어버렸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종종 십일조를 받지 못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그들은 다른 생계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삿 17:7-10, 18:18-20). 이어서 왕국시대에는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삼상 8:11-18) 십분의 일의 세금을 왕에게 바쳐야 했고 게다가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단지 개혁의 시대에만 백성들이 자기들의 십일조를 성실하게 바쳤을 뿐이다²⁰²⁾(대하 31:4-12; 느 10:37-38, 12:43-47). 마침내 바벨론 포로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는 십일조가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 이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질책했다.²⁰³⁾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의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3:7-12).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말라기 전체의 문맥 속에서 다루어

202) I. Roberson, "Tithe", in Wycliffe Bible Encyclopedia, vol. II (Chicago: Moody Publishers, 1975), 1718.

203) 일반적으로 말라기 3장 7-11절은 물질적 축복이 십일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회개의 표시로서의 십일조를 강조하고 있다.

야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 유대종교의 큰 특징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대단한 열의를 기울인 점이다. 이점은 유대교의 독특한 특색이며 다른 어떤 점보다도 바로 이 점이 포로기 후의 이스라엘 종교와 포로기 전의 이스라엘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다. 포로의 비운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이전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장래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²⁰⁴⁾ 거기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는 국가와 제사가 없는 상태로서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특징지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포로시대와 그 이후에 안식일, 할례, 제사법 등 모든 율법을 엄격하게 준행하도록 강조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²⁰⁵⁾

그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들은 형식적인 사소한 일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정화된 이스라엘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여겨졌고, 또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표지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다.²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비롯한 제사의 규정을 지키려는 열의가 없었다. 도리어 그 반대로 말라기 예언자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하여 매우 해이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는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²⁰⁷⁾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십일조를 지키라는 말씀보다 ‘약속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강조가 있다.²⁰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언약관계를 깨뜨림으로써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부인하자 말라기 예언과 그 증거로서 그들이 십일조를 도적질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말 3:9). 따라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과 믿음

204) John Bright, 이스라엘의 역사 (하), 김운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296.

205) Ibid., 297. Verhoef는 말라기의 청중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청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P. A. Verhoef, The Books of Haggai and Malachi,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180.

206) Ibid.

207)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기다림과 순종함과 사랑함에 점점 지치게 되었다.” E. Achtemeier, 나훔-말라기, 민경진 역 Interpretation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56.

208)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41. 김인환은 ‘십일조는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아마도 김인환은 십일조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다. 참조. 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196.

의 표로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과 언약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 그러므로 말라기의 메시지는 복과 저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회개의 표현으로서 십일조를 바치라는 의미다.²⁰⁹⁾

이와같이 십일조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다.

라. 신약시대의 십일조에 대한 교훈

이상에서 구약에 나타난 십일조의 시작과 십일조의 용도, 십일조 강조의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약에서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급 이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²¹⁰⁾ 또한 중요한 점은 여러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강한 유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인 십일조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십일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매우 큰 관점을 제공해준다.²¹¹⁾

예수님께서도 십일조에 관해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바 없다. 단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십일조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실 뿐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 23:22-24)

209)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341-42.

210) 복음서 외의 십일조 언급은 히브리서 9:5-9절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Lenski, 마태복음, 295.

211) 이러한 변화는 새 언약(신약시대) 아래에서는 율법의 시행적 성격이 옛 언약 아래서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율법의 본질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옛 언약 시대가 새 언약 시대로 바뀔 때 따른 시행적 변화이다. 즉 두 언약 아래서 율법의 이러한 시행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십일조의 본질은 여전히 새 언약 시대에도 남아있다. 이점은 십일조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율법의 교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인환은 이러한 연속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경의 십일조 제도와 신약의 성경적 십일조 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십일조에 관한 유일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 하나다.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잘 챙겨 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낼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철저히 십일조를 지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위선자였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른 삶, 자비로움, 신의는 저버리고 이것들보다 덜 중요한 십일조를 내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에 매달렸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들은 큰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작은 것을 크게 생각했다.

문제는 십일조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말씀 중 23절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인정하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²¹²⁾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라는 말씀도 아니고 오히려 머지않아 십일조의 규정이 폐지될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다. 십일조를 비롯한 모든 의식적 율법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제사에 참여하셨고 문둥병자에게 정결법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십일조를 비롯한 율법의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곧 폐지될 것이다. 우리는 십일조를 구원사적 흐름에서 구약의 성전제사제도와 관련해서 보아야 한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될 것이다.²¹³⁾

212) Morris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을 가지고 그리하신 것이다.”(Jesus does not find fault with them for what they did, but for what they left undone.)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2), 583.

213) Fee와 Stuart가 저술한 성경 이해의 좋은 지침서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구약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구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며,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옛 언약이 새 언약에서 갱신되었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새로워진 것만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들은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 설령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상징이다. 구약을 따른다면 지금도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십일조가 폐지되었단 말인가? 그렇다. 분명 폐지되었다. 구약의 성전과 성전제사가 폐지된 것처럼 폐지되었다. 이제 구약의 성전도 없어졌고 대제사장도 없어졌고, 제물도 없어졌고, 십일조도 없어졌다.²¹⁴⁾

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다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율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G. D. Fee, D. Stuart,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증보판 (서울: 성서유니온, 2001), 248-54.

214) 필자의 십일조 폐지 논거는 말라기의 해석과 구원사적 해석에 따른다. 이러한 해석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음의 내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부분의 주석을 전체로 인용한다. William Hendriksen, 마태복음 (하), 김경래 역 (서울: 아가페, 1988), 210-12. “이 구절은 해석상의 충돌을 낳고 있다. 저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 개의 양극단적인 태도는 피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결국 박하, 회향, 그리고 근채의 십일조를 시인하셨다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는 그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24절의 병행구절에서 주님은 지나치게 정확히 십일조를 지키는 것을 비난하고 계시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에 그것을 비유하고 계신다. 반면에 이러한 말들은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의미하신 것은 이렇다.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즉 의와 인과 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서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적이 율법이 말살되지 않는 한(골 2:14),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지 않으신 동안에는 십일조에 대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이 신자들을 인도하는 헌금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신자들은 체계적으로 비례에 따라서 즉 그의 능력에 비례하여서 헌금해야 한다(고전 16:2) 둘째, 신자들은 인색하지 않고 즐거이 내야한다(고후 9:7) 또한 Lenski, 마태복음, 294-95. “현저한 사실 중의 하나는 복음서가 십일조에 대하여 말할 때 바리새인들을 세 번 정죄하면서 그들을 엄중하게 통렬히 비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복음서 외의 세 번은 히 8:5-9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에 불과하다. 사도들 모두가 원래 유대인으로서 십일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들 어느 한 사람도 새 언약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십일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한 마디라도 말한 사람은 없다. 이 강한 부정명제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큰 연보를 드리라고 부탁했을 때(고전 16:1이하; 고후 8:4이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주석학적으로, 교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약성경은 새 언약 시대의 규약으로서 십일조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일에 십일조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새 언약은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그의 청중들은 아직 옛 언약 아래 있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십일조를 지정하셨다(레 27:30

그러나 이것은 십일조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지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나 적게 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제 헌금은 문자에 얽매어 묵인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한다(롬 7:5).²¹⁵⁾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골 2:14-17, 표준새번역)

마. 연보에 반영된 십일조의 원리

십일조 제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록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은 지금도 맥맥히 살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고 하신 말씀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민 18:21; 신 12:6, 12:22-27).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유효적 의미의 동사, 즉 완전히 행한다는 의미)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역시 유효적 의미의 부정과거) 할지니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 십일조에 대한 그들의 곡해를 지적하고 올바른 십일조 제도를 보호한 것이다. 일부학자는 부정사를 명령법으로 만드는 ‘에데이(ἐδῆν)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에서 사용하는 관용어로서 ‘these to do’=‘these do’와 같다. 그러나 ‘에데이’의 뜻은 그 필연성이 사실상 아직 계속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시상도 아니요 보통 명령어도 아니요 과거의 필연성만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박윤선,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문제”, 신학정론 11, (1988 가을), 111-13., 서철원, “십일조 헌금의 신학적 근거”, 신학과 학문,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215-17.,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334-38.을 참조하라.
215) 바로 이 점 때문에, 김인환은 ‘성경적 십일조 제도’(Biblical Tithe Institution)에 대해서 말한다. 혹 그는 ‘그리스도인의 십일조’(Christian Tithe)라고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성경적 십일조, 혹은 그리스도인의 십일조의 내용을 보면, 이미 십일조 개념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가 드려야 할 십일조는 각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십분의 일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십일조(성경적 십일조)는 정확한 십분의 일이란 액수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322. 그렇다면 굳이 십일조란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헌금은(고후 8:1-15) 십일조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나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후 8:1-15)

여기에서 나타나는 헌금의 첫째 원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의 자발적인 외적 표현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이다.²¹⁶⁾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려운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심지어 자신들의 능력에 지나치도록 바친 희생적 헌금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자비의 표현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²¹⁷⁾에서 보이듯이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결과로 그들

216)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345.

217) 원문은 '바로 그들 자신들을 그들이 먼저 주님께 드렸다'(ἐαυτοὺς ἔδωκαν πρῶτον τῷ κυρίῳ) 라고 되어 있다. 순서상 '그들 자신들'이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생명이 주께 속했으니 재물은 당연한 것이었다. F. F. Bruce, *1&2 Corinthian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1), 221.

은 자원하여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약의 연보의 원리는 구약의 십일조의 원리를 폐지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진전한 원리로서 더 심화되고 내면화된 것이다. 구약의 헌금은 십일조를 내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율법의 정신이 오늘에도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로서의 십일조가 폐지되었지만 이제 십일조는 헌금의 최소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시대에는 십일조를 바쳤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상, 십일조보다 더 바쳐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한 크리스스툼의 설교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²¹⁸⁾ 십일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일조’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한다.

첫번째 헌금의 원리가 헌금의 자세, 헌금의 의미라고 한다면 헌금의 둘째 원리는 헌금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신약에서도 헌금의 둘째 원리는 ‘평균의 원리’다(고후 8:13-15)²¹⁹⁾ 초대교회의 원시공동체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잠시 보여진 이 평균의 원리 즉 공유(共有)의 정신 안에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려는 성경의 아름다운 뜻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고린도후서 8-9장의 바울의 교훈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패한 20-30년 뒤에 쓰여진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의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초대교회 공동체를 언급할 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강력한 타락의 본성으로 인하여 이 ‘평균의 원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원리가 포기되어도 좋은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며 평균의 원리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키프리안(Cyprian)이 한 말은 오늘날에도 생생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에는 참다운 일치와 순수한 공동체가 있었다. 그들을 일치

218) Haughy,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151-52.에서 재인용.

219)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345.

시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애덕이었다. 그 결과 사랑의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마음의 일치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공동체의 아량은 허물어지고 있다. 처음에 그들은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십일조도 바치지 않는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틀림없는 증거다. 오늘의 시대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다.²²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나 mammon의 선택과 결단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은 mammon을 경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요구 (totalitarian demand)하신다.²²¹⁾

돈은 결코 우리 자신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명으로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부한 중에서도 자기 부정을 통한 절제와 검소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은 어떤 보금자리에도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 새와 같다.²²²⁾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부를 절제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²²³⁾

돈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²²⁴⁾ 돈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 은혜의 표현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돈은 저주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²²⁵⁾

220) Haughey,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149.에서 재인용.

221) Lloyd-Jones, 산상설교집 (하), 131.

222)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167.

223)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124.

224)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3.

225) Ibid., 31.

5장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돈의 성격, 관과 신앙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쉬지 않고 흐르는 돈이 개인을 떠나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부와 부자

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내면에서 신앙과 결단의 문제, 즉 '실존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또한 돈의 사회적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²²⁶⁾ "돈은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말한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말처럼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쉬지 않고 운동한다.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머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재화의 표상이요 부의 상징인 돈은 경제적 활동 속에서 인간의 타락을 반영하는 돈의 왜곡현상을 만들어낸다. 돈의 왜곡현상은 타락한 세상 안에서 불행하게도 돈의 많은 부자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1.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 부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모든 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든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든 간에 선한 것이

226) 돈은 경제순환의 윤희유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여 경제내부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오게도 한다. 박홍립, 경제학 원론, 416.

다.²²⁷⁾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경제적 활동 속에서 돈을 만들어 냈고, 그 돈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돈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탐욕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돈의 불균등한 분배현상인 돈의 왜곡현상, 즉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고 가난은 저주의 결과인가? 또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우리는 먼저 구약에서의 부자에 대한 입장과 신약에서의 부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구약에서의 부자²²⁸⁾

우리는 구약에서 부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보게 된다. 그 첫째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음의 신명기 말씀을 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이 하시며(신 28:2-11)

위의 구절은 소의 축복의 책으로 알려진 신명기의 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보답으로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또한 욕을 위로하던 친구들의 말처럼 축복은 순종과 관련되어 있고 고난은 악함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라고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함의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잠 30:8-9). 여호와와의 축복은 부하게 하시는 것이다(잠 10:22). 의인의 집은 보물이 가득하다(잠 15:6). 부요와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시 112:3). 부는 결코 게으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잠 10:4).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전 5:19).

227) Richard J. Mouw,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 한화통 역 (서울: 두란노, 1996), 24-43.

228) Barclay, 기독교 윤리학, 180-84.

반면에 가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 대한 보상이며(신 28:15-46; 레 26:14-26; 사 3:16-24, 14:1, 5:9-10) 또한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요(잠 6:6-11, 10:4-20, 20:4-13, 24:30-34) 쾌락을 축한 결과이기도 하다.²²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부자에 대한 구약의 두 번째 견해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²³⁰⁾ 구약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통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 73편에는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경건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만한 자를 시샘하였음이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그러므로 백성이...말하기를...불지어다 이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만 가는 도다 (시 73:1-12)

여기서는 부자가 악인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사야 53장 9절에서도 악인과 부자를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예언자들은 부자들이 축복된 사람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의 사람이며 심판의 대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 백성 너의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해서 저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재판을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복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렘 5:26-30)

예레미야 예언자는 부자들 때문에 그들의 국가가 멸망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

229) Julio De Santa Ana,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김지명 역 (서울: 대화출판사, 1978), 9-10.

230) Ibid., 11-12.

러한 예언자들의 부자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은 이사야와 에스겔 등 예언서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겔 28:3-7; 사 5:8-13).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자만심(잠 28:11; 겔 28:3-7)과 의심의 원천(잠 30:9)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부터 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시 52:7; 잠 11:28; 욥 31:24). 신명기의 말씀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 8:12-14)

나. 신약에서의 부자

리차드 카시디(Richard J. Cassidy)는 예수의 사회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부와 부자에 대한 입장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²³¹⁾ 첫째, 재산 축적에 대해 반대하신다.²³²⁾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부가 차지하는 위치와 뜻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유산분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교훈하신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쥐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눅 12:16-21)

231) R. J. Cassidy, “예수의 사회적 입장”, 한완상 역 기독교 사상 1981년 8월호, 113-25.

232) Ibid., 117-18.

예수님께서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검소한 생활을 권고하신다.²³³⁾ 예수님의 매일 매일의 여행과 식사의 특징은 검소하고 단출한 것이었다. 한번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마 8:20)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셨다. 또한 복음전파를 위해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눅 9:3)고 말씀하신다.

셋째,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하신다.²³⁴⁾ 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부에 대한 탐욕과 그것의 축적을 경고하신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는 교훈이 특정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일반화하고 있다.

넷째, 부자를 비판하신다.²³⁵⁾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부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고 하셨다. 또한 누가복음 8장 4-15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재물에 대한 걱정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9-31절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훈하셨다.²³⁶⁾ 특히 제자들에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눅 18:25)고 하신 말씀 속에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잘 나타난다.

다섯째,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 칭찬하신다.²³⁷⁾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삭개오의 회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누가복음 19장 1-10절에서 삭개오는 부자 관원과는 대조적으로 결단성 있는 행동을 했다. 삭개오는 회심하면서 기꺼이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버렸지만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떠나버렸다. 삭

233) Ibid., 118.

234) Ibid., 119.

235) Ibid., 120-22.

236) Barclay, 기독교 윤리학, 192-94.

237) Cassidy, "예수의 사회적 입장", 123-24.

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은 돈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를 크게 칭찬하셨다.

이상에서 성경에 나타난 부와 부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약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양극단의 견해, 즉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얼핏보면 모순같이 보인다.²³⁸⁾ 구약 안에서의 모순과는 달리 신약에서의 부자에 대한 입장은 일관성있게 정죄되고 위협되고 있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는 부자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를 찾아볼 수 없다.

선입견 없이 성경을 읽어본 독자라면 부자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라는 인상을 바로 느낄 수 있다.²³⁹⁾ 신약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에 대한 저주가 메아리치고 있다.²⁴⁰⁾ 이것은 나쁜 부자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부자를 말할 때 나쁜 부자와 좋은 부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부자의 특정한 나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부자의 전체적인 현실 때문이다.²⁴¹⁾

그렇다면 신구약 안에서 나타난 여러 모순된 내용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가, 저주의 결과인가? 오늘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의 일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는 “부와 번영이 언제나 축복의 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말한다.²⁴²⁾ 존 호이(John C. Haughey)도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상은 이교의 사상이다”라고 말하고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생각은 전통적인 이교의 사상을 일반적으로 뒤엎는 하나의 혁명이었다고 지적한다.²⁴³⁾

사실 칼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여러 곳에서 ‘축복=부자’의

238) Ellul, 사람과 돈, 34.

239) Ibid.

240) Ibid., 160.

241) Ibid.

242)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153.

243) Haughey,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116.

등식을 거부하고 있다.²⁴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 아주 집착되어 있고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질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적 소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는 대신에 우리를 질식시키는 밧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²⁴⁵⁾ 또 디모데전서 6장 3-7절의 강해에서 그는 “그런 까닭에 부유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부를 탐닉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은 가난한 자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⁶⁾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항상 축복일 수는 없다. 로날드 사이더가 “부와 번영이 언제나 상급이요 축복이라는 주장은 이단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²⁴⁷⁾

예수님께서 하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타락의 기회’²⁴⁸⁾요 ‘심각한 위험’²⁴⁹⁾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오류는 정죄받고 버림받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수수방관하는 일이다...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번영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판단하고 즐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과 궁핍한 자들을 경멸적으로 모욕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한다.²⁵⁰⁾

칼빈은 시편 41편 1절의 주석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이러한 보상개념으로서의 축복과 저주의 사상은 “세상의 모든 세대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오류다”라고 개탄하고 있다.²⁵¹⁾ 칼빈에 대한 연구에 정통한 프레드 그레함(Fred Graham)은 이러한 칼빈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4)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160-224.

245) Ibid., 224.

246) Ibid.

247)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153.

248) Ellul, 사람과 돈, 48.

249)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224.

250)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91-92.

251) Ibid., 92.

일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칼빈은 결코 빈곤과 불운을 고동 받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냉대의 증거로 보거나 번영을 개인적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나 구원을 위한 선택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칼빈은 선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다²⁵²⁾

부와 가난,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시험하는 양식이지만,²⁵³⁾ 칼빈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위험한 일로서 부자는 항상 엄하게 시험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는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⁵⁴⁾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기쁨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도다.²⁵⁵⁾ 잠언에 나타난 아굴의 기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블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 30:8-9)

2. 부와 부자의 의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면 과연 부와 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의 두 성경구절을 보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 그의 패망이라(잠 14:2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4)

252)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91.

253) Luke T. Johnson, 소유와 분배, 최대영 역 (서울: 대장간, 1990), 117.

254)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224.

255) Barclay, The Gospel of Matthew, vol. 1, 252.

위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부자=축복'의 등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자됨이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자됨은 지혜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함께 한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단순한 부자로 나타나지 않고 영광과 생명이 부자됨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자됨의 이상인 것을 보여준다.²⁵⁶⁾ 반면 부자됨 자체는 부가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돌아갈 때 항상 저주와 심판이 대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별 의미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믿음이 없으면서도 축복의 겉모양을 가진 많은 부자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즉 부가 항상 축복이 아님을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구약에서의 부와 부자의 의미는 모형이요 상징임을 보여준다. 앞에서 본 대로 구약에서 부와 부자됨이 항상 복은 아님을 말하지만 신약에서 부와 부자됨이 현저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부정적 의미는 '부자가 하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등의 예수님의 교훈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의 부·부자됨의 의미는 마치 구약의 성전제사가 신약적인 것의 모형과 상징을 가진 것처럼 신약적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엘룰은 사람과 돈에서 구약에서 부·부자는 모형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²⁵⁷⁾

첫째, 부와 부자됨은 선택의 무상성을 의미한다.²⁵⁸⁾ 부자가 되는 것이 일단 인간이 애써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인 것을 말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분의 사랑과 선물임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가 거저 받은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구약에서의 부자됨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이

256) Ellul, 사람과 돈, 65. "부와 축복 간에는 정확한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욕이 그 점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재물을 주셨음도 강조할 만하다."

257) Ibid., 68-80. Graham 역시 앞의 책에서 신 15:11-15에 대한 Calvin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부와 가난의 상징적 모형적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258) Ellul, 사람과 돈, 71.

루어진 것이 아닌, 즉 선택의 무상성을 보여준다. 부자의 무상성은 소유나 선택이 인간의 공로에 기인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둘째, 부와 부자됨의 의미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준다.²⁵⁹⁾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나 정신적이 것만이 아닌 물질적인 풍성함으로도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데 끝나지 않고 평안을 수반하는 부를 주신다. 부·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징이다.

셋째, 구약의 부와 부자는 예언적,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다.²⁶⁰⁾ 이사야서 60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대로 세상 끝 날에 열국의 모든 부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다. 결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이 만든 것은 나쁜 것이라든지 없어져버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

오늘 이 세상에서의 부와 부자됨이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부가 참여할 것이며 그 때에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종말적 의미를 갖는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예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솔로몬의 것보다 크고 완전한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와 부자에 대한 구약의 상징적 의미는 성취된다.²⁶¹⁾ 구약에 나타난 부·부자의 의미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히 10:12)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무상성과 은혜의 풍요로움을 예시해준다. 모든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폐지되고 모든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해 폐지되듯이²⁶²⁾ 부와 부자가 되는 것도 더 이상 영적인 차원을 갖지 않는

259) Ellul, 사람과 돈, 72.

260) Ibid., 73-75.

261) Ibid., 77.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여러 분야의 상이한 표현들은 신약과 구약의 상호관련성 안에서 통일성과 연속성, 약속과 성취, 계시의 점진성,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 왜냐하면 은혜의 중요로움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²⁶³⁾ 구약과는 달리 신약 안에서 부와 부자가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다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롬 8:31-32)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행위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행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구약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가시적, 물질적 사건 속에서 계시되었다. 흠애굽이든 가나안 정복이든 그것들은 언제나 강력하게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실체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자됨이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상징적 모형적 의미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이요 축복인 이상 부는 더 이상 모형도 아니요 축복도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부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부와 부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이요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부자다. 진짜 부가 무엇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약 2:5)

제 2 절 가난한 자

앞에서 우리는 부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며 부자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상징적 모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부자됨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은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도 보았다. 오히려 부자는 칼빈의 지적대로 가난한 자보다 더 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칫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자의 필연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부자의 그러한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

262)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 엠마오, 1987), 85-99, 또한 104-12,도 참조하라.

263) Ellul, 사람과 돈, 77-78.

의 끈질긴 사랑의 대상이며 축복의 수혜자들임을 알 수 있다.²⁶⁴⁾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의미를 더욱 깊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와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성경은 가난과 가난한 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일반적 편견을 견지하기 위해 가난의 불편한 도전을 피하거나 유행하는 일반적인 해석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²⁶⁵⁾ 이제 성경 말씀들 살펴 보자.

1.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여기서는 구약을 중심으로 '가난한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다음 단락에서 신약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가. 출애굽기에서

네가 만일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행세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니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출 22:25-27)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자의 비율이 높았다.²⁶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64) John R. W.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72.

265) Ibid., 269.

266)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79), 66.

스라엘에게는 다른 윤리를 요구하신다. 즉, 가난한 자에게는 관대해야 하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주어야 하며, 채권자 형세를 하기보다 차라리 빌려준 원금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또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을 보면 고리대부하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²⁶⁷⁾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었다. 다음의 두 구절을 보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라(출 23:3)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출 23:6)

이 말씀에는 부자들 틈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리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침해당하거나 약탈을 당할 때 법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기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 가난한 사람이 호소하는 소송 사건이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처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²⁶⁸⁾

너는 육 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칠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출 23:10-11)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부자가 베풀어야 할 자비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칠 년째의 소출은 가난한자의 차지이다. 안식년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해다. 일곱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드림으로써 그 해의 소출은 가난한 자의 것이 된다.

이상의 흠애굽기 세 개의 본문²⁶⁹⁾에 나타난 사상은 가난한 자를 천대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²⁷⁰⁾

267)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68.

268) 김정준, 역사와 신앙, 김정준 전집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99.

269) 세 개의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말 달(כָּ), 아니(אֲנִי), 에브론(עֲבֹרֹן)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 개의 낱말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한다.

나.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남기 마지막 유언적 설교다.²⁷¹⁾ 이 책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으로서 그들의 삶이 종교적이요 그들의 종교가 삶이란 것을 구약의 어느 책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²⁷²⁾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네 마음을 강퍽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죄를 얻을 것이라...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곳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7-11)

이웃이 주리면 먹여야 할 의무가 각자에게 주어졌다. 가난한 형제가 요구하면 쓸 것을 넉넉하게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가난을 축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을 신명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빈부의 차이로 말미암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그대로 묵인하라는 것을 결코 아니다.²⁷³⁾

매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14:28-29)
제 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앞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270) 김정준, 역사와 신앙, 200.

271)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1), 139.

272) 김정준, 역사와 신앙, 204.

273) Ibid., 206.

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신 26:12-15)

살아갈 수단이 어려운 가난한 자들, 즉 레위인과 나그네, 과부와 고아들은 십일조로써 혜택을 받아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²⁷⁴⁾ 따라서 이스라엘에서의 십일조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의 생존권에 관계된 규례인 것이다.²⁷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십일조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 세 가지의 십일조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용도에 있어서 십일조가 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 3년의 십일조는 나그네와 고와와 과부, 즉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비록 십일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 십일조의 상당한 부분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²⁷⁶⁾ 이러한 성경적 교훈에서 교회가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 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가 꾸는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올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신 24:10-13)

274) 신 14:28-29의 십일조법은 이 예물의 목적을 땅과 그것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계층들, 구체적으로 레위인, 체류자, 과부, 그리고 고아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간략하게 규정한다. 그 점이 다시 위의 본문 신 26:12-15에서 반복되는데,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복주심의 열매들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뉘어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도 필수적인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수입 중 일부를 떼어 그런 형제 자매들을 먹여 살리도록 기대되었다. Patrick D. Miller, 신명기, 김희권 역 Interpretation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86.

275)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97.

276) C. L. Feinberg, "십일조",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3), 693.

이 본문은 자기의 소유물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쓴 가난한 자에 대해 채권자의 태도에 관한 규정이다.²⁷⁷⁾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만일 그 채무자가 가난한 자이면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만일 담보물로서 가난한 사람의 옷을 취하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 담보물을 취할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골라 취하지 말고 채권자는 문 밖에 서 있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담보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할 것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특히 유의할만하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신 24:14-16)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노동정책을 말해주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²⁷⁸⁾ 현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비추어볼 때 단순하지만 이것은 당시 주변국의 법과는 달리 가난한 근로자들의 권리, 이익, 편리를 옹호하는 인도주의적 법규인 것을 볼 때 가난한 자의 편에 선 노동관계법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다. 예언서에서

양심과 정의를 위해 외친 예언자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파헤친 사람들이며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정의를 부르짖은 사람들이다.²⁷⁹⁾ 예언자들은 가난과 비참에도 아랑곳없이 부를 독점한 부유층에 대하여 가차없이 비판을 하였다.

277) 김정준, 역사와 신앙, 207.

278) Ibid., 208-209.

279) 예언자들의 부르짖은 사회 정의는 결코 유물사관에 의해 해석될 수 없다. 그들이 부르짖은 사회 정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 있다. 서인석, 오늘의 구약성서 연구, 200주년 성서 별책 총서, vol. 5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68.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며 자기 가족이 살 집 한 채도 없는데 호의호식을 추구하며(암 6:4-6) 재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예언자들의 눈에는 있을 수 없는 불의로 비치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암 26-7)

부자는 '비계가 올라 살찐 돼지' 같아(렘 5:28)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하고'(애 7:19) '마음대로 먹고 배부른 살찐 바산의 암소'들로 묘사된다(암 4:1). 그들의 주택은 '상아와 흑단'(암 3:15)으로 꾸민 집이고 '풍성한 포도원'으로 둘러싸인 '돌을 다듬어 지은 호화주택'(암 5:11)이다. 부자들은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 빈 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 듯이 차지하는 자들'이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부자의 축재는 '사기와 거짓 저울, 야바위친 눈금과 자, 가짜 돈'(암 8:4-6; 미 6:9-12; 호 12:8)이 낳은 결과로 예언자들은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된 부자들이 멸망을 가져오는 장본인이라고 경고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젓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암 8:4-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언자들은 가난한 자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으며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

라. 시편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인간사회의 관심은 냉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에 대해서 동정적이며 부자나 권력자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신 것을 시편의 시인들은 증거하고 있다.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보여주는 소망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고 가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시편의 시인들은 예언자들의 외침이 소용이 없게 되자 부익부빈익빈의 사회모순과 부조리 속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²⁸⁰⁾ 인간은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들어 부한 사람과 똑같은 인권을 선언해주시다. 다음의 시편 구절을 보라.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백성 중 귀한 이들과 함께 세우신다” (시 113:7)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대접의 클라이맥스를 볼 수 있다. 가난한 자는 먼지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그 먼지 속에서 일으키셔서 귀인으로 만드시고, 궁핍한 자는 거름더미같이 더러운 존재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열국의 귀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하신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시 82:2-4)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하늘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보는 사상은 여호와가 기록하다는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밝혀주며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의 부당성을 벌하신다고 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시 82:3)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도와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시며(시 109:31),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며(시 69:33),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견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견지신다(시 35:10),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여호와가 친히 일어서시고 그들을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지대에 두신(시 12:5)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하게 대접해주시고(시 68:10),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시

280) 김정준, 역사와 신앙, 214-15.

34:6), 그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시 9:12), 저희를 지키고 보존하신다(시 127:281)

이상에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정준은 이스라엘의 법질서를 형성시키는 원리를 발터 아이히로트(Walter Eichrodt)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⁸²⁾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 둘째, 이스라엘 법 정신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경을 가진다. 셋째, ‘가난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규약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구약의 사상 속에서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²⁸³⁾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고 또한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등하게 여기셨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잠 14:31).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잠 19:17)라고 한 구약의 말씀은 로날드 사이더가 지적한 것처럼 ‘실로 크고 놀라운 말씀’이다.²⁸⁴⁾

2.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보았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자

가.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다.

281) 김정준, 역사와 신앙, 217-18.

282) Ibid., 202-203.

283) Ibid., 203.

284)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79-80.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 2:6-8)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²⁸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요를 버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은 구약에서 정한²⁸⁶⁾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 규례를 따랐다.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제사를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었다. 제물의 종류는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제사장을 위한 제물로는 수송아지, 족장을 위한 제물로는 숫염소,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제물로는 암염소, 암어린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 중에서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비둘기 한 쌍을 사서 희생제물로 드렸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사신 날 중에 집도 소유도 거의 없으셨다. 한 번은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마 8:20)고 말씀하셨다. 그는 빌린 배에서 설교하셨고 빌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그의 마지막 만찬조차 빌린 방에서 보내셨고, 심지어 빌린 무덤에서 장사되셨다.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⁸⁷⁾ 그는 가난한 자, 바로 그 자체였다.²⁸⁸⁾ 하나님의 아들로써 대속의 사역은 고난의 종(사 53장)으로서, 여호와와 미친한 찌꺼기(시 22편)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완수하는데서 이루어졌다.²⁸⁹⁾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메시아)이신 것은 무엇보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와 종’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고려될 때 그와 더불어 시작된 메시아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²⁹⁰⁾ 여기 ‘여호와와 종’은 그의 고난과 죽음 속에 나타난다. 그는 고난을 가진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 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다. 고

285) Ellul, 사람과 돈, 172.

286) 박철수, 성경의 제사 (서울: 좁은 문, 1996), 185.

287) Stott, 현대 사회의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86.

288) Harvey Conn, 해방신학연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80.

289) Ibid., 180.

290) Ridderbos, 하나님 나라, 223.

난의 삶, 종의 모습은 무엇보다 모든 부를 거부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신 데서 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러한 고난의 길은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와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²⁹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난한 자에 대한 구약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성격과 그 분 안에서의 성취적 의미를 가진다.²⁹²⁾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가난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²⁹³⁾

나.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가난한 자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5)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가난한 자와 매우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나라의 대상자는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성경의 최대의 주제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 중에도 잘 나타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반복하신다. 리델보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전하신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²⁹⁴⁾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을 읽으시고

291) Ridderbos, 하나님 나라, 234.

292) Ellul, 사람과 돈, 172.

293) Ibid., 174.

294) Ridderbos, 하나님 나라, 249. 한편, 정훈택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3과 눅 6:20b의 비교 연구”라는 글을 통해서 마 5:3의 ‘마음이 가난한 자’와 눅 6:20b의 ‘가난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다.²⁹⁵⁾ 하나님나라의 성취는 가난한 자와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⁹⁶⁾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포하셨다.²⁹⁷⁾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마 5:3)
 가난한 자²⁹⁸⁾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눅 6:20)

특별히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한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²⁹⁹⁾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약속이거나 하나님나라가 좀 더 가까이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 순간에 하나님나라가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나라의 전파가 가난한 자와 관련된다는 사실이다.³⁰⁰⁾ 세례 요한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지금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다.

자를 성급하게 통합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는 물질적 가난 그 자체는 이상적 상태로 볼 수 없고, 다만, 가난 혹은 마음의 가난이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이 될 때에 복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정훈택,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3과 눅 6:20b의 비교 연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朱土 최의원 박사 신학교육 40년 기념논문집,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323-43.

295) 여기서 “응하였다”(πεπλήρωται)는 말은 완료형 동사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한 것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Ridderbos, 하나님 나라, 91.

296) Ibid., 253.

297) Ibid., 255.

298) ‘가난한 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훈택,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3과 눅 6:20b의 비교 연구”, 323-43을 참조할 것.

299) Ibid. Ridderbos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증거로서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① 악한 자가 정복된다. ② 이적을 행하시는 권세가 나타난다. ③ 구원을 소유한다. ④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300) Ibid., 116.

다. 가난한 자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편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았다.³⁰¹⁾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끝없는 편애(bias to poor)를 보이신다.³⁰²⁾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현존하신다. 교회가 이 점을 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³⁰³⁾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고 불길한 예감을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르크스주의자의 말처럼 들릴 것이고 조화되지 않는 극단적인 심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도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위험한 것으로 될 것까지는 없다.³⁰⁴⁾ 단지 잠언에 나오는 두 구절만 생각해보면 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잠 19:17),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잠 14:31)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마지막 심판의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 25:45)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본다.³⁰⁵⁾ 가난한

301) Sider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편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여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둘째, 성경은 물질적 가난을 이상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셋째, 가난하고 억눌렸다는 사실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하나님은 부자들의 구원보다 가난한 자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어떤 이념(예를 들면, 마르크스 주의)에 근거해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섯째, 하나님은 게으름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난해진 자들의 죄를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99.

302) Stott, 현대 사회의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81.

303) Ellul, 사람과 돈, 171.

304) Conn, 해방신학 연구, 179.

자를 돕는 것이 예수를 돕는 것이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를 돕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⁰⁶⁾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봉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³⁰⁷⁾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생각은 초대교부들의 사상³⁰⁸⁾ 가운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레고리우스 니센누스(Gregorius Nyssenus)는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³⁰⁹⁾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동정심이 극진하신 우리의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인품을 빌려주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나라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인정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는다. 그들이야말로 세력 있는 고발자요 가장 유력한 변호자들이다.

또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 설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오. 그 때 그리스도께서 잡숫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³¹⁰⁾

한 여자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가져와 그분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 중 일부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마 26:11)고 하심으로써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자신과 동일시되는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 가난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반영하는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³¹¹⁾

305) Lenski, 마태복음, 369., Haughy, “Tithe”, 220. 실제로 예수님은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삶을 사셨음(사 53:3)을 사셨고, 그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과 버려진 사람들(the outcast)을 향한 것이었음을 Morris는 지적한다.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639.

306) Barclay, The Gospel of Matthew, revised ed, vol. 2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325-26.

307) De Santa Ana,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36.

308) 초대교회 교부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살피려면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Justo L. Gonzalez, Faith and Wealt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Ideas on the Origin, Significance, and Use of Mone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0), 172-222.

309) Haughy,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134.에서 재인용.

310) Ibid., 136.에서 재인용.

가난한 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칼빈이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이웃의 신앙과 자선 상태를 검사하는 하나님의 검사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가운데 현존하심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도 가난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 속에서 우리 앞에서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된다.³¹²⁾

제 3 절 가난한 자의 축복

돈이 없으면 사람을 가난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제 위치와 기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의 하나인 팔복은 가난한 자를 매우 강조형으로 언급하면서(마 5:3)³¹³⁾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나라와 가난한 자 사이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³¹⁴⁾

311) Ellul, 사람과 돈, 175.

312) 여기서 데이비스(Peter H. Davids)의 유익한 소논문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그는 예수와 복음서에 대한 사전(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에 실린 “부와 가난(Rich and Poor)”라는 논문에서 “부의 유일한 천상적 사용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The only heavenly use of wealth is in the care of the poor.)이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God has a special interest in the poor.)을 신뢰함으로써 가능함을 말했다. Peter H. Davids, “Rich and Poor”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Downers Grove: IVP, 1992), 701-10.

313) Davis는 팔복의 각 구절에서 각 부분의 둘째 구에 따라나오는 αὐτοί는 대조적 기능을 한다고 했다. W. D. Davis,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6), 289. 따라서, 마 5:3절의 경우, 일반적인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14) Ridderbos, 하나님 나라, 249.

1. 누가 가난한 자인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난한 자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다.³¹⁵⁾

‘가난한 자’의 의미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난한 자의 첫째 요소는 경제적 물질적 측면이다.³¹⁶⁾ 가난한 자들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난은 없다. 성경은 가난이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거

315)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앞서 언급한 아니(אִנִּי), 에브론(עֲבֹן), 달(דָּל)이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포토코스(πτωχός)와 페네스(πένης)가 있다. 이중 아니(אִנִּי)와 아나브(אֲנָב)는 동근동의어로서 같이 쓰이는 낱말인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낱말이다. 이 낱말들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약자의 비참함과 괴롭힘을 받는 외형적인 고난과 억압을 의미하는 반면, ① 이 낱말들의 동사형은 ‘답변하다’, ‘괴롭히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신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② 경제적으로 가난한 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달(דָּל)이나(시 82:3), 에브론(עֲבֹן)을 이 낱말 뒤에 같이(신 24:14, 16:49, 18:12, 22:9) 사용하고, ③ 아니(אִנִּי)의 반대어가 ‘부유한’이 아닌 ‘폭력적’인 것으로 보아 이 낱말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아니(אִנִּי)와 아나브(אֲנָב)는 이중적 의미의 불행, 즉 돈과 관련된 경제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내포하고 있다. 에브론(עֲבֹן)은 앞의 아니(אִנִּי)와 아나브(אֲנָב)보다는 좀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한다. 즉 가난의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낱말이다. 달(דָּל)은 사회적인 연약함과 열등성을 뜻하는 것으로 가난한 계층, 낮은 계층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난한 자는 포토코스(πτωχός)와 페네스(πένης) 두 가지가 있다. 포토코스(πτωχός)는 구걸해서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자라는 뜻이고, 페네스(πένης)는 일을 해서 살아갈 정도로 가난한 자의 뜻이다. 즉 포토코스(πτωχός)는 소유와 생계수단이 전무한 거지와 같은 상태이고, 페네스(πένης)는 소농이나 근로자들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니(אִנִּי)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로서 구약에 약 80회 정도 나오며, 시편, 예언서에 주로 나온다. 에브론(עֲבֹן)은 시편과 예언서에 16회 나오고, 달(דָּל)은 예언서, 율기, 잠언 등에 48회 나온다. 포토코스(πτωχός)는 신약에 34회 나타나며 6번은 정신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와 같이 사용되었다. F. Hauck and E. Bammel, "πτωχός, πτωχεία, πτωχίσω",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6. (Grand Rapids: Eerdmans, 1968), 885-915., H. Merklein, in "πτωχός, πτωχεία, πτωχίσω", in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94), 193-95., Ridderbos, 하나님 나라, 251., Ellul, 사람과 돈, 166.

316)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73-77.

나 나태, 방탕, 폭음, 폭식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만 가난한 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집이 없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돈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서 귀머거리, 병어리, 소경, 절름발이, 포로, 옥에 갇힌 자, 짓밟힌 자들이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달리 부른 말이다.³¹⁷⁾ 왜냐하면 포로된 자, 묶인 자, 소경, 앓은병이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의 두 번째 요소는 영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말한다.³¹⁸⁾ 돈만 없으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만 없는 것으로 가난한 자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의 가난한 자의 의미는 점차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³¹⁹⁾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무력한 자를 옹호하시므로 불가피하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다.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데 무력한 자이므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게 된다. 점차로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존적 존재의 상징으로 되어갔다³²⁰⁾(시 24:9; 33:3; 36:11; 75:10; 146:6; 149:4; 스 3:12; 욥 24:4; 사 26:6; 숙 9:9).

그렇다고 가난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죄가 가난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역시 죄는 죄다.³²¹⁾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불의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치우쳐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 23:3)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출 23:6)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레 19:1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난은 특권이 아니다. 가난은 선이 아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와 반역, 거짓과 불경이 들어가는 순간 가난한 자이기를 그치고 비록

317) 김창락,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가난한 사람들", 신학사상, 1986년 여름호, 375. '가난한 자'란 포로된 자, 묶인 자, 소경, 앓은병이, 귀머거리 등을 지칭하는 류(類) 개념의 외연(外延)이다.

318)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77-78.

319) Hauck and Bammel, "πτωχός, πτωχεία, πτωχεύω", 888. Ridderbos, 하나님 나라, 250-52.를 참고하라.

320) 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77-78.

321) Ellul, 사람과 돈, 168.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자의 대열에 끼게 된다는 것이다.³²²⁾

이상에서 고찰한 '가난한 자'의 의미를 전제할 때 마태복음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마 5:3)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눅 6:22)는 말씀은 편집자의 상반된 관심사나 누가 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시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의 양면성과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³²³⁾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이 결합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가난의 이중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가난과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잘못이 있어왔다.³²⁴⁾ 첫째 잘못은 가난을 정신화시키는 오류다.³²⁵⁾ 가난의 물질적 경제적 차원을 도외시하고 가난을 정신적으로 해석할 때 가난이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뜻이 된다. 즉, 이러한 해석은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만 해석하고 가난이 갖는 현실적 아픔과 고통을 무시함으로써 가난의 의미를 관념화 시켜버리는 것이다.

가난에 대한 또 다른 잘못은 가난을 미덕으로 해석하는 오류다.³²⁶⁾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선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난은 추구해야 할 덕목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에 대하여 엘룰이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그 이중적 특성은 결코 갈라질 수 없으며 그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³²⁷⁾ 또한, 앙드레 페리(Andre Pery)도 마태와 누가가 말한 가난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가난의 내면성과 실제성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이중적인 개념은 잘못된 해석을 피하게 해준다. 물질적 가난이란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난의 정신 또는 정신적 가난은 그것이 진정한 물질적 가난의 원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선이기 쉽다"라고 하였다.³²⁸⁾

322) Ellul, 사람과 돈, 168.

323) Ridderbos, 하나님 나라, 484-85.,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79.

324) 김창락,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가난한 사람들", 372.

325) Ibid.

326) Ibid.

327) Ellul, 사람과 돈, 167.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난한 자를 정신적인 가난한 자로 생각하는 오류와 함께 마르크스가 말하는 프로레타리아 역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프로레타리아는 가난한 자를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으로만 보는 단순화에서 온다. 마르크스주의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와 계급적 증오의 옷을 입음으로써 영적 내면적 가난을 무시한다. 공산주의는 마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비싼 향료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말한 가룟 유다처럼 가난과 가난한자의 의미를 오해한 사 이비요 반 진리인 사상이다.³²⁹⁾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자의 이중적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킴으로써 가난한 자가 되어야한다.

2. 가난한 자가 되자³³⁰⁾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나라의 축복의 수혜자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씀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나 단순한 강조형이 아니라 친구약 곳곳에서 메이리 치고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편리하게 해석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한다. 가난한 자가 받을 축복을 소유해야 한다. 가난한 자의 이중성을 교묘하게 해석함으로써 쉽게 가난한 자가 되거나 가난을 회피해서

328) De Santa Ana,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 34.에서 재인용.

329) Ellul, 사람과 돈, 177-78, 187.

330) 김영봉은 "가난을 추구함으로 가난을 치유한다"는 제목의 장에서 가난의 유익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언급한다. ① 부가 영적 생활의 목을 조른다면 가난은 영적 생활을 자유롭게 한다. ② 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둔다. ③ 부는 우리 눈을 멀게 하지만 가난은 눈을 뜨게 해준다. 곧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④ 부는 우리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지만, 가난은 겸손하게 만든다. ⑤ 부를 잘못 다루면 심판에 처하게 되는 반면, 스스로 택한 가난은 그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김영봉은 크리소스톰이 자발적 가난(Voluntary poverty)라 불렀고, 프란체스코가 '성녀 가난'(Lady poverty)이라 불렀던 자발적 가난, 영성적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53-59.

는 안 된다. 그 한 쪽이 마르크스의 오류이고 또 다른 한 쪽은 가난한 자를 정신화시키는 일부 기독교인의 오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께서 실제로 의도하셨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³³¹⁾

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Savior)이시고 주님(Lord)이신 그 분을 닮아야 한다. 제임스 보이스(James M. Boice)가 “20세기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 열심을 내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별로 없다”고 한 말은 깊이 새겨볼 만하다.³³²⁾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다는 것은 그 분이 친히 우리 중에 행하신 것 같이 (요 13:5; 요일 2:6)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분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엡 2:4; 요 13:34; 15:12), 그 분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골 3:13), 그 분이 생각하신 것 같이 생각하고(빌 2:5),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해야한다(요일 3:16).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침투되어 우리를 채우고 변화시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에 आरो새겨지는 것이다.³³³⁾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로 오셨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을 소유해야 한다. 영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난한 자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구체화시키고 가시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³³⁴⁾

331) A. W. Tozer, 하나님을 추구함, 이영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26.

332) J. M. Boice, 산상수훈 강해,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7), 217.

333) Bonhoeffer, 나를 따르라, 290.

334) De Santa Ana,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49.

나.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의 이증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둘은 어느 경우에도 분리시키거나 자의적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함으로써 가난의 핵심을 외면하고 쉽게 안일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다. 겸손하게 되는 것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을 관념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가난 없는 겸손도, 겸손 없는 가난도 모두 불안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가난을 정신화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다시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난하게 될 것을 명하셨고 실제로 진지하게 이 문제에 직면하여 결단할 것을 요구하셨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나누어줌으로서 가난한자가 될 있다. 이 길 외에는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머뭇거리고 있다. 쉬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초대교회성도들은 실제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들은 영적으로만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다. 마틴 헝겔(Martin Hengel)은 그의 저서 초대교회와 사회경제사상에서 초대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성은 거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³³⁵⁾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상의논의를 중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듯한 해석에 논리를 앞세워 이 말의 뜻을 희석시키거나 변명의 논리를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날마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소유에 집

335) Hengel, 초대교회의 사회경제사상, 57-74.

착하여 그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돈이 주는 쾌락과 편리함을 거부하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한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다.³³⁶⁾ 많은 신학 교과서는 이것을 지나쳐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포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약 1:17)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진지하거나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진실과 성실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부자가 되게 하신다.

문제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부에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부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자.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는 자가 되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청빈사상이 아니라 청부사상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위험하고 큰 유혹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자.³³⁷⁾

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가난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면서도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선택적 가난이요 자발적인 가난인 것이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에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초대교회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타났던

336) Tozer, 하나님을 추구함, 30.

337)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회구조적인 악의 문제는 피상적으로 언급하거나 미화한 채, 단순히 부자가 되어 선용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위 요즘의 '청부론'의 약점이 있다고 김영봉은 올바르게 지적하였다. 김영봉, "청부론의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김동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기독교 사상, 2003년 7월호, 41. 더군다나, "그의 나라를 구하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메시지는 자칫,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식으로 왜곡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Donald Kraybill,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정영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162-63.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지금은 효력이 없어진 말씀인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살아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역사한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고난의 의미와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절제의 삶과 검소한 삶이야말로 오늘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돈의 위력을 통제하는 삶이야말로 고난을 의미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단순한 생활양식을 개발해야 할 결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필수품으로 만족해야하며 덜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더욱 많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재검토해야 한다.³³⁸⁾ 개인의 생활용품, 의복과 주택, 여행, 예배당 건물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구체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품과 사치품의 구별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할 수 없으나 신앙적 양심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제와 청빈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난의 의미로서의 고난인 것이다.

라.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지향하는 삶은 검소한 삶이요 고난을 사는 삶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금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³³⁹⁾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난하게 된다는 단순한 생각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다.

왜 우리는 가난을 지향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로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338)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259.

339) De Santa Ana,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57.

결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일 수 없다.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가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3)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가는 결단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가난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난은 죄악의 산물이며 부끄러운 상황이다.³⁴⁰⁾ 따라서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왕국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가난의 역설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영적 가난함을 배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물질적 가난이라는 악을 뿌리뽑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요일 3:17) 이 말씀에서 재물을 뜻하는 헬라어는 생활비를 의미한다.³⁴¹⁾ 즉 가난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도움은 여분의 남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가지고 하라는 의미이다. 야고보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³⁴²⁾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약 2:15)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 자발적인 가난의 선택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340) De Santa Ana,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56.

341) I. H. Marshall, The Epistle of Joh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8), 194.

342)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 중 지갑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는 물질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富)가 그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는 영적 위험의 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약 2:1-4, 4:1-3, 4:13-17, 5:1-6). 반면 그는 가난한 성도들을 격려한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인내를, 부유한 이들에게는 나눌 것을, 그는 돈에 대한 제자도의 바른 태도로 제시한다. Peter H. Davis, “Controlling the Tongue and the Wallet: Discipleship in James, in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233-36.

제 6 장 결 론

인간은 돈과 함께 살아간다. 돈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하나가 소유에 관한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특히 인간의 강력하고 뿌리깊은 소유욕이 어떻게 돈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는 사고 파는 거래구조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거저 주고받은 은혜가 충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태양과 공기가 값없이 주어지듯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세계였고, 또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세계였다. 그곳은 '내 것'과 '네 것'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세계였으며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없는 세계였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내면에 뿌리깊은 소유욕을 갖게 하였으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무한한 욕망을 갖게 하였다.

돈은 타락으로 나타난 산물이지만, 이제 돈은 타락한 세상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수 없이 많은 인간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 돈과 관련하여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은혜적 관계이다. 은혜적 관계는 무료의 삶이요 선물의 관계다. 둘째, 대가적 관계이다. 모든 것을 대가로 측정하고 대가에 따라 거래하는 관계다. 셋째, 뇌물적 관계다. 이것은 돈이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된다. 돈이 심부름꾼이 되어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사고 팔며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 선물의 세계를 지향한다. 선물의 세계는 가까운 가족이나 우정 속에서 아직도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타락한 세계는 돈의 법칙이 지배한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측정되고 돈에 의해 사고 팔리는 대가의 세계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은 거의 전능의 힘을 가지

고 인간과 세계 속에서 활동한다.

돈은 온갖 수단으로 은혜의 세계를 방해하고 파괴한다. 돈은 모든 것 즉 신앙, 애정, 우정, 효도까지도 상품화시키고 객관화시킨다. 돈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상품 사이를 오가면서 그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킨다. 대가의 세계에서 뇌물의 세계까지 나아간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행 2:44-45)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1)

초대교회에서 성령세례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이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공동체 역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 은혜의 공동체는 돈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교환의 세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 값없이 나누어 가지는 돈이 필요 없는 은혜의 세계였다. 비록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8-9장에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 잘 나타난다. 초대교회의 은혜의 공동체가 실패한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바울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추구해야 할 공동체로서 제시하였다. 그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5:1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돈의 위력을 거부하고 거저 즉, 선물의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야한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돈이 필요 없는 사회, 돈이 무력한 세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돈이 필요 없는 세계다.

성도들은 돈이 필요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단지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은혜의 법칙을 실천하는 자들인 것이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

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후 8:15; 출 16:18)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돈의 발생과 성경적 의미를 살피는 가운데, 돈이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돈이나”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와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헌금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은 헌금과 돈의 올바른 사용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주장이다. 또한 돈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제, 즉 빈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자발적인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평배한 구조적인 악 속에서 돈을 버는 문제³⁴³⁾에 대해서까지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부록에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일부 다루기는 했으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343)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땅 투기나 사채 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옳은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부 록

목회 현장에서 자주 대두되는 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

1.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이란 '돈의 성격'과 관련되어 생각해야 한다. 돈은 인간이 가장 사모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헌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헌금은 신앙고백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이다.

둘째,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내가 빛진 것, 고마운 일에 대하여 사람은 빛진 마음이 있다. 헌금이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다. 결코 헌금은 잘되기 위한 수단이거나 더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2. 성경에 나타난 헌금의 종류는?

어느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헌금종류가 서른 여덟 가지나 된다고 한다. 필요에 따라 헌금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헌금은 가지 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질의 문제이다. 헌금의 가지 수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헌금은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십일조헌금,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헌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특별헌금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

3.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부자가 많은데 그들이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인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와 열심히 주어지는 일반은총이다. 안 믿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고 유능할 수 있으며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헌금=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고 저급한 사고방식이다.

4.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교회에 내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자기가 한 교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득이 연약한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할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5. 헌금은 기명이어야 하는가? 무기명이어야 하는가?

두 가지 점에서 성도의 헌금은 원칙적으로 기명이어야 한다. 첫째, 목회적 차원에서다. 이미 돈의 성격과 헌금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헌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헌금은 성도의 믿음수준과 신앙생활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므로 목회에 있어 성도가 헌금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신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다른 신앙생활은 일일이 지도하면서 돈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목회는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물론 이 말은 단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어설픈 신앙공식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헌금이 무엇이며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은 기명이어야 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기명은 후보에 헌금액수를 낸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는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명이다.

둘째, 기명의 혼련은 헌금의 순종이다. 기명의 헌금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미 돈의 성격 중 돈이 가진 익명성에 대하여 본 바가 있다. 돈은 숨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린다. 그러기에 기명된 헌금은 용기가 필요하다. 목회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대체로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이 원칙에 밝다는 것이다.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느니 '헌금은 신앙 양심의 문제다'느니 그래서 '헌금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속에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것은 마치 많은 액수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그럴듯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근사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다. 헌금 기명은 자기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에서 헌금은 기명이어야 하되 조건부 기명을 필자는 지지한다.

6. 십일조는 폐지되었다?

그렇다. 폐지되었다. 그것은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 안에 있는 율법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제사가 폐하여진 것과 같이 십일조도 폐하여졌다.

7. 그렇다면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다.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말은 헌금을 내지 말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구약의 모든 법은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십일조의 숫자적 표현은 신약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십분의 일이라는 숫자는 더욱 심화되고 내면화되고 강화되었다. 상징적 의미로써 십일조란 말을 써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8. 십일조는 세금 전 수입기준인가? 세금을 포함한 수입기준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약에서 십분의 일은 상징적 의미이다. 십분의 일은 더 많이 내도 더 적게 내도 십분의 일이다. 십분의 일은 자신을 드리고 고백하는 행위의 상징적 표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박하와 회향과 십일조까지 챙겨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세금 전인가 세금 후인가는 믿음과 양심 문제이다. 우리는 숫자를 계산하는 마음보다 더 드리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름다운 믿음이다.

9. 성도가 돈놀이나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성도가 돈놀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은 위험한 것이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수한다."는 말이 있다. 또, 돈을 주고받는 일이 계속되다보면 그 관계성이 메말라간다. 부득이하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자 역시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경시대와 금융시장이 발달된 지금과는 돈의 문제가 많이 다르다. 지금은 은행이 있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자는 어쩌면 원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자 수준에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성경은 "고리대금을 삼가라"고 했다. 아울러 성도간의 돈을 빌리고 빌려 가는 것을 무조건 삼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한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현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10. 촌지는 받아도 되는가?

뇌물이 어떤 일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선물은 어떤 일의 결과에 상관 없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다. 선물이나 뇌물이나는 신앙양심으로 판단할 내면의 문제로서 수량화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사회가 뇌물 사회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적 통념과 상식에 어긋나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촌지라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11. 성도가 놀음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적은 놀음도 돈이 가진 특성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 즉, 한번 시작했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갈수록 큰돈을 걸게된다. 그러므로 양심이 허락하는 극히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또, 만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2. 성도의 증권 투자에 대하여

목사 사모까지 증권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증권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증권은 자본주의의 꽃인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렇다. 증권이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경제구조중 하나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본주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증권투자도 하나의 돈놀이이다. 필자가 증권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 측면에서 증권투자로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씹씹이를 헤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매우 해롭다.

날마다 증권 즉 돈에 관심을 갖는 마음은 신앙을 메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증권 투자를 해선 안될 것이다.

13. 세금 문제에 대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세금의 문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나라 백성 됨의 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세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있고 그중 대부분이 탈세의 문제에 부딪치고 있

다. 정상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탈세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져있다. 우선 세금을 내는 삶의 입장에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점이고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도 원인이 있다. 즉 조세저항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하는 성도는 실명제가 더욱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영수증 제도를 정착하는 일 등 세금제도 개선과 아울러 정직한 세금을 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14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우츠바르트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에서 말한 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둘 다 돈을 중심으로 사회를 보는 이복 형제다.”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 성경은 능력껏 최선을 다해 재산을 늘리는 일을 나쁜 일이라 말하지도 않고 또한 성경은 평등한 사회를 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초월한다. 성경은 어떤 형태든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배척한다. 에리히 프롬이 존재냐 소유냐에서 말한 대로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로 모여진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15 성도가 되면 가난해야하는가?

돈이 많으면 넉넉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돈이 만들어내는 속성이다. 이상하게도 돈이 적을수록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성도가 청빈해야 되는가? 예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본다. 먼저는 깨끗하게 별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빈해야한다. 그러니 더 좋은 것은 청부사상이다. 깨끗하게 더 큰 부자가 되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부자 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한다. 그러니 조심할 것은 돈이 예상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권성수, 성경해석학1,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 김동호,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 2001.
- 김수길,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 청사, 1985.
- 김수형, 정치 경제학, 서울: 한길사, 1988.
-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서울: IVP, 2003.
- _____, "청부론은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김동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기독교 사상, 2003년 겨울호, 22-43.
- 김영봉, 오덕호 편, 누가복음 새로 읽기: 문학적 읽기의 이론과 실제, 신약연구시리즈 1권,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김영철, "십일조의 성경적 의미," 신학정론 8 (1986): 334-45.
-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김인기, 통화의 상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8.
- 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정준, 역사와 신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김창락,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가난한 사람들," 신학사상 53 (1986): 372-75.
-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1.
- 류호준 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朱土 최의원 박사 신학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박윤선,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문제," 신학정론 11 (1988): 111-13.
- _____, 헌법주석, 서울: 영음사, 1983.
- 박창환, "성서적 노동관," 기독교 사상, 1977년 1월호, 25-27.
- 박철수, 성경의 제사, 서울: 좁은 문, 1996.
- 박홍립, 경제학 원론, 서울: 박영사, 1984.

-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81.
- _____, 오늘의 구약성서 연구, 200주년 성서 별책 총서, Vol. 5,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 엠마오, 1987.
- _____, 신앙과 학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성기문, “설교를 왜곡시키는 돈의 힘.” 기독교 사상, 2003년 2월호, 156-65.
- 오덕호, 하나님이냐, 돈이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전경연, 예수의 비유, 서울: 종로서관, 1990.
- 조누가, 십일조를 넘어서: 기독교인가, 매머니즘인가, 서울: 베들복, 1999.
- 한국신약학회 편, 신약성서의 경제윤리, 신약논단 4권,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한종호, “청부와 훌륭한 거부 곁에서 서성대는 예수.” 기독교 사상, 2003년 7월호, 44-59.
- 황호찬,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1996.

2 번역서적

- Achtemeier, Elizabeth, 현대성서주석: 나훔-말라기, 민경진 역, Interpretation,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Barclay, William, 기독교 윤리학, 한중식 역, 서울: 양서각, 1985.
- Boice, James M., 산상수훈 강해,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7.
- Bonhoeffer, Dietrich,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Bright, John, 이스라엘의 역사, 김윤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 Bruce, Frederick F., 구약의 신약적 성취,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 Cassidy, Richard J., “예수의 사회적 입장.” 한완상 역, 기독교 사상, 1981년 8월호, 113-25.
- Conn, Harvie M., 해방신학 연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De Santa Ana, Julio, 교회사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김지명 역, 서울: 대화출판사, 1979.
- Ellul, Jacques, 사람과 돈, 양명수 역, 서울: 보리, 1988.

-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0.
- Foster, Richard J.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빛과 소금, 1986년 3월호, 61-62.
- Fromm, Erich. 소유냐 존재냐, 한완상 역. 서울: 전망, 1979.
- Frostin, Per. 유물론 이데올로기 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3.
- Galbraith, John K. 돈, 최광열 역. 서울: 현암사, 1980.
- Gnilka, Joachim. 마르코 복음 (II),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Graham, Fred W.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Green, Robert W.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이동하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 Haughey, John C.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0.
- Heim, Karl. 기독교 윤리, 강학철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Hendriksen, William. 마태복음(상), 김만홍 역. 헨드릭슨 성경주석. 서울: 아가페, 1989.
- _____. 마태복음(하), 김경래 역. 헨드릭슨 성경주석. 서울: 아가페, 1984.
- _____. 마가복음(하), 최태영 역. 헨드릭슨 성경주석. 서울: 아가페, 1989.
- _____. 누가복음(하), 김유배 역. 헨드릭슨 성경주석. 서울: 아가페, 1984.
- _____.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역. 헨드릭슨 성경주석. 서울: 아가페, 1983.
- Hengel, Martin. 초대교회의 사회경제사상, 이정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Hoeffner, Joseph K. 그리스도교 사회론, 박영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9.
- Jeremias, Joachim.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4.
- Johnson, Luke T. 소유와 분배, 최태영 역. 서울: 대장간, 1990.
- Kraybill, Donald.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영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1.
- Kraft, Hans. 요한복음서록, 박재순, 최미영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Laum, Bernhard. 저 신비로운 것, 돈, 전경연 편역. 서울: 향린사, 1973.
- Lenski, Richard. 마태복음, 문창수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3.
- Lloyd-Jones, D. Martin. 산상설교집,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0.
- Marshall, I. Howard. 루가복음(II), 강요섭 역. 국제성서주석 31-2. 서울: 한국신학연구

- 소, 1984
- Marx, Karl. 경제학 철학 수고, 김태경 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87.
- _____. 자본론, 김영민 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87.
- Miller, Patrick D. 현대성서주석: 신명기, 김희권 역, Interpretation,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 Milton, John. 실낙원, 이창배 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9.
- Mouw, Richard J.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Murray, John. 기독교윤리, 김남식 역, 부산: 성암사, 1975.
- Müller, Klaus. 돈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편집부 역, 서울: 들불, 1988.
- Needleman, Jacob. 돈과 인생의 의미, 이희재 역, 서울: 고려원, 1993.
- Nitche, R. 화폐의 역사, 김학은 역, 서울: 법문사, 1984.
- Pink, Arthur W. 산상수훈, 지상우 역, 서울: 엠마오, 1986.
- Piper, Otto A. 성령 · 처녀탄생 · 돈, 전경연 역,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9권, 서울: 향린사, 1973.
- Poythress, Vern S.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2.
- Ridderbos, Herman N.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7.
- Robertson, O. Palmer.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Schumacher, Ernest F. 작은 것이 아름답다, 김진욱 역, 서울: 범우사, 1986.
- Schweizer, Eduard. 마태오 복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Sider, Ronald J.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IVP, 1997.
- Simmel, Georg. 돈의 철학, 안준섭 외 역, 서울: 한길사, 1988.
- Stein, Robert H. 예수님의 비유,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8.
- Stott, John R. W.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_____. 디모데전서 · 디도서 강해,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_____.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Sölle, Dorothee. 사랑과 노동,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Thielicke, Helmut. 기다리는 아버지, 이계준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78.

- Tillich, Paul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Tolstoi, Lev N. 톨스토이 단편선, 박형규 역, 서울: 인디북, 2003.
- Tozer, Aiden W. 하나님을 추구함, 이영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Weber, Max 사회경제사, 조기준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9.
- _____,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종선 역, 서울: 세계, 1987.
- White, John 금송아지, 오태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Wogaman, J. Philip. 경제 이데올로기 대논쟁, 조운상 역, 서울: 청사, 1988.
- 宮川實, 경제원론, 이내영 역, 서울: 백산서당, 1985.

3. 외국서적

- Aland, Kurt, ed.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10th ed. Stuttgart: Germany Bible Society, 1993.
- Aland, Kurt,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revise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8.
- Balz, Horst, and Schneider Gerhard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arclay, William. The Gospel of Matthew, Revised ed. 2 vol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 _____, The Gospel of Luke, Revise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 Bauer, Walter, W. F. Arndt, F. W. Gingrich, and F. W. Dank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rev. and augmente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regory K. The Book of Revelation,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iéler, André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ans. Paul T. Fuhrmann,

- Richmond: John Knox Press, 1961.
- Blass, Friedrich, and Albert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and ed. R. W. Fu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romiley, Geoffrey W.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4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9.
-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ed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2000.
- Bruce, Frederick F. 1&2 Corinthian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 Beveridge, Grand Rapids: Eerdmans, 1989.
- _____.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 Davis, William D.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Ellinger, Karl, et al.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0.
- France, Richard T. Matthew,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VP, 1985.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2 vols. Anchor Bible Commentary 28-28A, New York: Doubleday, 1981/85.
- Gonzalez, Justo L. Faith and Wealt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Ideas on the Origin, Significance, and Use of Mone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0.
- Gaebelein, Frank E.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 Zondervan, 1982.
- Green, Joel B.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Green, Joel B. et al. eds.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Downers Grove: IVP, 1992.
- Guinness, Os. Doing Well and Doing Good: Money, Giving, and Caring in a Free Society, Colorado Springs: NavPress, 2001.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Hill, David. The Gospel of Matthew,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2.
- Kittel, Gerhard, and Friedrich Gerhard,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and ed. by G. W. Bromiley 10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63/1976.
- Kline, Meredith G.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83.
- Lane, William L. The Gospel of Mark,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 Longenecker, Richard N. ed.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1996.
- Louw, Johannes P., and Eugen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Marshall, I. Howard. The Epistles of Joh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Meyer, Heinrich A. W.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eyer'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New York: Funk and Wagnalls Pub., 1884.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2.
- Pfeiffer, Charles F., et al. eds. The Wycliffe Bible Encyclopedia, Chicago: Moody

- Publishers, 1975.
- Schnackenburg, Rudolf. The Gospel of Matthew, trans. Robert R. Barr, Grand Rapids: Eerdmans, 2002.
- Verhoef, Pieter A. The Books of Haggai and Malachi,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7.
- Wallace, Daniel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ervan, 1996.
- Wiersbe, Warren.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An Exposition of the New Testament Comprising the Entire "Be" Series, 2 vols, Illinois: A division of Scripture Press, 1989.
- Zerwick, Max, and Mary Grosvenor.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93.
- Zerwick, Max. Biblical Greek Illustrated by Examples, trans. Joseph Smith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94.

Vita of
Churl Soo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Bundang Doore Church, Bundang, Korea

Personnal Data

Birthdate : January 27, 1945
 Birthplace : Kwangju,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Hoo Ja Park
 with 2 children, Youngju and Sejin
 Home Address : 702-401 Hwaseong Village, 186 Yatap Dong,
 Bundang Ku, Seongnam Si, Gyungki Do,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pdong)
 Ordained : October 17, 1989

Education

B. Sc. :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66.
 M. Div. :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7.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U.S.A., 2004.

Personal Experience

1/198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Bundang Doore Church, Bundang,
 Gyungki Do, Korea
 1/1989 to 1/1986 Senior Pastor
 of Seoul Doore Church, Seoul, Korea